

Rise Up 순장 2012 교역자 수련회

교회와 전도, 화합과 성장으로 변화된 교역자가 되기를!



대한예수교장로회(순장)총회(총회장 유영섭 목사·사진)는 8월 21일(화)~23일(목)까지 경기도 용인시 백암수양관에서 총회교육부 주최로 2012 교역자 수련회「교회와 전도」Rise Up 순장, 이란 주제로 수련회를 개최했다.

엄광일 목사(교육부장, 한사랑교회)의 인도로 개회예배가 시작되어 이준순 목사(좋은교회)가 기도, 총회장 유영섭 목사는 오전 15:9~11절을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나 된 것은"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고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유 총회장은 전국에서 교역자 수련회에 참석한 교역자들을 환영하고, 권면과 위로로서 말씀을 전했다. 개회예배 설교에서 총회장은 "은혜란 1)바울은 주님을 만난 것이 은혜라고 했다. 이처럼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이다. 자신이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목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가? 또한 자신이 목회사역을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으로서 바로 서 있느냐? 아니면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고질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먼저 주님을 만나는 목회자로서, 나의 나 없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역자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총회가 성장하고 개교회가 부흥성장 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수련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단합하는 데 주력해 가자며 축복을 기원했다.

예장(순장)총회는 21일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첫날 특강에서 "개혁! 가장 아름다운 도전"이란 주제로 강사 류성은 목사(예천교회), "기본기가 튼튼한 교회"로 강사 이재성 목사(신천교회), "예수님의 마음 전도법 전도 세미나"에 강사 김기남 목사(예심전도훈련원 원장)가 나섰다.



이어 22일은 새벽예배에 인도에 서명법 목사(교육부부장, 공덕교회)가 뒤 3:12~17절을 인용 "유일한 대인"이란 주제로 설교했다. 이날 "창대교회 강신과 패러다임의 변화"란 주제로 강사 김동민 목사(창대교회), "한사랑교회 과거,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강사 엄광일 목사(한사랑교회), "전도가 되게 하라"는 제목으로 임승재 목사(G7 선교센터 대표, 인천 세움교회)가 각각 특강을 했다.

또한 Rise Up! 순장 2012 교역자 수련회 마지막 날 23일 아침기도회에 마태복음 7:13-23절을 봉독한 후 "주님, 저를 아시나요"란 제목으로 홍문식 목사(영천교회)가 설교했다. 한편 교육부장 엄광일 목사(한사랑교회) 인도로 지태일 목사(새빛중앙교회)가 기도, 윤정현 목사(해맑음교회)는 요나서 1:11~12절을 봉독하고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제목으로 패회 예배를 끝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예장합동 잠실벌을 달군, 기도한국 2012 통곡의 기도

예장합동 100주년 기념 '기도한국 2012' 대회... 2만여 기도의 합성 잠실벌 달귀



2만여 성도들이 예배의 감격, 기도의 합성으로 죄악을 회개하며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는 계기를 삼았다.

예장 합동(총회장 이기창 목사)은 26일 주일오후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대규모 회개 기도회인 '기도한국 2012' 대회를 개최

했다. 기도한국은 성경적 개혁주의 신앙을 표방하며 국내 최대교단으로 성장한 예장합동의 대표적 기도회로 총회설립 100주년을 기념해 열렸으며, 12개 프로그램 중 정점에 있는 행사였다.

500여 교회의 성도들이 참석한 대회는

감사와 영광, 고백, 위로, 회복, 새로운 100년 선포비전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오정현 목사(사랑의교회), 이문희 목사(맑은샘광천교회), 이건영 목사(인천 제2교회), 민찬기 목사(예수인교회), 이규왕 목사(수원제일교회) 등이 맡은 설교에서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 첫사랑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에 애통하며 회개와 소망의 기도를 드려자고 촉구했다. 메시지처럼 대회 준비위원회는 강단 뒤 조형물을 통곡의 벽으로 형상화했다. 아름답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상으로 무너졌던 것처럼 회개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오정현 목사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도와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감사로 영적 강대국의 역할을 감당하자"고 전하고, 이건영 목사는 "민족과 교회가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헤어 나올 수 없는 동굴이 아니라 넘쳐흐르는 터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찬

기 목사는 "용서와 회복이 있는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말했다. 또한 이규왕 목사는 "우리가 빛의 자녀로 복음의 열매를 맺을 때 한국은 하나님의 큰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박진우 청와대 사회통합수석을 통해 축하메시지를 보내 "지역과 세대, 계층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소외된 이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대회 준비위원장 소강석(새에덴교회) 목사는 "육망의 바벨탑만 쌓고 있는 이 시대 기도한국 대회는 하나님께 드려진 아브라함의 제단과 같은 시간이었다"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단을 통해 교단의 새로운 100년, 영광의 100년을 더 위대하게 쓰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잠실벌을 달군 예장합동 100주년 기념, 2012 기도한국 대회에서 2만여 성도들은 회개와 통곡으로 한국교회와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독도를 위하여 기도했다.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사설

저 봤자 본전, 이겨야 본전

일본은 독도의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독도에 대해 그 주권에 대한 재판을 청구했다.

일본은 52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선포에 이의를 제기한 이후 계속 독도 영유권 주장을 펴왔고, 54년 9월 25일 독도 문제를 ICJ에 가서 최종 결정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한 달 뒤인 10월 28일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엔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변영태 당시 외무부 장관의 '아츠크술서(俄側口述書)'라는 제목으로 3장의 영문에 한글 번역본이 첨부된 이 구상서는 이때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처음으로 공식 정리한 문서로서, 독도에 대한 어제 오를 정해진 게 아니다. "독도는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한 최초의 희생 영토다.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불합리하면서도 시종일관한 주장에 대해 우리 국민은 일본이 왜 동일한 방법의 침략을 반복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는다"고 했으며, "독도는 본질 지역이 아니며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우리정부의 기본 입장을 분명히 전했다. 이를 근거로 변장관은 "한국 국민에게 독도는 일본과 상대한 한국 주권의 상징이며, 또 한국 주권의 보전을 시험하는 실험대. 한국 국민은 독도를 수호하고 한국 주권을 보전할 결의를 갖고 있다"고 선포하고, 이 문서에서 "한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갖고 있으며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권리를 증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서와 함께 발표된 성명은 "독도는 단 몇 개의 바위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겨레의 영예의 빛이다. 이것을 잃고서야 어찌 독립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 일본이 독도 탈취를 꾀하는 것은 한국 재침략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전했다. 그 후 우리 정부는 독도에 경비부대를 상주시키고 한국 영토라는 표지를 세우며 대응했다.

이번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서한을 반송기로 한 결정에도 중요한 증거가 됐다고 한다.

일본이 한반도에 남긴 상처는 나라를 짓밟은 일로 20세기 최악의 잊을 수 없는 반인도적 범죄 범주에 포함시켜야 마땅한데 전범으로 독일 히틀러는 자살했고, 이탈리아 무솔리니는 처형됐지만, 히로히토는 살려주었다.

사실 히로히토는 1931년에 시작된 전쟁을 용인하고 지휘했으며, 만주사변을 용인했고, 진주만을 공습한 뒤에는 대본영에서 전쟁을 지휘했다. 전쟁의 패색이 보이던 1942년, 일본의 외무장관은 항복을 건의했는데 이를 계속 거부함으로써 수백만 명을 더 죽게 하고 원자폭탄 투하를 불러들인 장본인이다.

히로히토는 그가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 한 측근이 맥아더 장군의 묘소를 찾았느냐? 고 하니 거절한 사람이다. 바로 배은망덕한 자이기 때문에 죄책감도 모르고 침략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는 전형적 일본인이다..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에 독도는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 「지리지」(1454년)는 울릉도(무릉)와 독도(우산)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두 섬이 6세기 초엽(512년) 신라가 복속한 우산국의 영토라고 기록하고 있으므로, 독도에 대한 통치 역사는 신라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도쿄 전범재판에서 일왕은 맥아더 앞에 서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독수리 앞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병아리같았으리라. 사형! 이라는 한마디면 그는 즉시 죽는다. 그런데 지금의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꼭 불독과 같이 생긴데다 잔뜩 찌프린 얼굴로 기회를 노리고 있는 모습을 사진에서 볼 수 있다. 독도 등 동아시아 영토 갈등의 원인은 과거 잘못을 청산하지 못한 일본이 크게 반성하여야 한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장』총회 제60회 정기총회 공고

총회장 유영섭 목사 / 총장 노알 수(D.R.E)



총회장
유영섭 목사
안천교회



부총회장
지태일 목사
한빛전원교회



부총회장
박종선 장로
동천교회



서기
강철 목사
대천교회



회록서기
이재성 목사
신천교회



회계
위용찬 장로
안천교회



부회계
김성선 장로
대천교회



시찰부장
권정희 목사
송덕교회



시찰부부장
박장복 장로
영암교회



선교부장
김동민 목사
창대교회



선교부부장
김일수 목사
동천교회



선교부부장
김은제 장로
동천교회



교육부장
엄광일 목사
한사랑교회



교육부부장
서명범 목사
공덕교회



고시부장
지태일 목사
새빛중앙교회



재단부장
김인근 장로
송덕교회



재단부부장
추영조 장로
신천교회



재단부장
윤정현 목사
해맑음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순장)총회는 성장하고 부흥하는 순장총회
 2012 제60회 정기총회에 총대 여러분을 초청하고 사랑합니다.

총회장 유영섭 목사 외 임원 일동

총회(순장)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156-853)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1동 632-57 Tel : 02)845-7711 Fax : 02)844-7711
 H-page 문의 : 041)853-9966, E-mail : lov153@naver.com

총회장소 용인 백암수양관
 경기도 처인구 백암면 백봉리 60번지 ☎ 031-333-8047
 문의 : 041-853-9966 010-8268-0091 010-5468-6574(지저스타임즈 본사)

5개 개혁신교단, 반성과 분열 아픔 극복 통합총회 개최

“9월 18~21일 미아 소망교회에서 통합총회 갖는다”

한국장로교 총회 설립 100주년을 맞는 제 97회 총회를 앞두고 개혁·5개 교단 통합전권위원회(13인)·(위원장 임장섭 목사 외 위원일동)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지도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혁교단의 대통합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위원장 임장섭 목사(여수 은성교회)와 5명의 총회장 중 장세일 총회장, 이기태 총회장, 윤종식 총회장, 송동원 총회장 등 4명이 참석했다. 황인찬 총회장은 불참했다.

통합전권위원회는 이날 “통합총회는 다음달 18일부터 21일까지 서울 미아소망교회(장근태 목사)에서 갖는다”고 발표했다. 또한 “신학과 인준 문제는 소위원회에서 연구 보고하여 통합전권위원회에서 다루고 통합총회에서 결정한다”고 밝혔다.

5개 개혁교단 대표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장로교단 설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제97회 총회를 앞두고 흠어진 역량을 결집하여 한국교회에서 개혁교단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대표들은 “신학과 신앙이 일치한 우리 형제교단들은 한국교회와 본 개혁교단에 주신 시대적 사명에 충실하기 위하여 과거의 교단분열이라는 부끄러운 역사를 반성하고 분열의 아픔도 극복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대표들은 특히 “우리 통합 총회는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사수하여 이

단을 배격하며 진리를 사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통합교단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이며, 다음달 18~20일까지 진행되는 통합총회 전까지 각 교단의 헌법과 규칙이 그대로 유효하다. 총회 전후 통합전권위원회 13인이 각 교단 추천으로 선정되며, 각 총회 서기

와 총무 1인이 협력해 각 부서의 조직을 돕는다.

교단 목회자 양성 최종신학교와 인준 문제는 통합전권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연구·보고하고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으며, 노회는 지역에 따라 가능하면 통합을 하되 사정에 따라 통합할 수 없을 경우 숫자가 많은 곳을 1로 차순으로 번호를 부여한다. 또한 각 교단이 가지고 있던 모든 부채는 통합 총회 이전에 각 교단이 해결키로 했으며 기타 미비한 것은 13인 통합전권위원회의 결의로 추가할 예정이다.

이들 5개 교단이 통합을 하면 통합된 교단(예정총회 개혁)의 교세는 2100개 교회가 된다. 하지만 추후 신학과 신앙이 같은 개혁교단과 계속 통합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개혁총회는 1979년 분열 이후 100주년을 맞아 제97회 총회에서 5개 교단이 통합하여 한국교회나 장로교회의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도총회 영입한 예정 개혁 전국장로회 총회 열려

개혁측 장로 참석자는 단 두명, 이상기류 의심

예정 개혁총회 제 15회기 전국장로회 정기총회 및 제 2회 전국장로세미나가 16일 서울예원교회(갈릴리움)에서 4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신임회장에 허진국 장로(서울임마누엘교회)를 선출하고 각종 안건을 처리했다.

문제는 전도총회를 영입한 개혁 측 300여 교회 중 이번 총회 참석자는 단 두 명뿐이라는 것이다. 이날 마지막 인사에서 개혁총회 측 장로가 나와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기도로 극복하자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 장로에 의하면, 개혁 측 장로회원은 1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전해져 전도총회를 영입했다는 말을 무색하게 하고 있으며, 저조한 참석률은 이상기류가 흐르는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하고 있다.

이날 개회예배에서 총회장 조경삼 목사는 “사도의 동역자 에바브로의 기도”

제하로 설교했고, 조경삼 목사가 축도를 했다. 세미나 주 강사에는 유광수 목사(세계복음화전도협회장)가 나섰으며, 정은주 목사(전국장로회지도위원회)는 특강을 맡았다.

2부 총회는 이희중 회장의 인사와 서기의 회원점명, 개회선언, 회순제책, 전회의록낭독, 활동보고, 감사보고, 재정보고, 회칙심의, 임원개선, 신규 임원교체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신 사업계획과 기타 안건은 임원회로 위임하고 폐회 기도로 마무리했다.

지난해 초미의 관심 속에 전도총회를 영입하여 1년이 다 되 가고 있지만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다. 오는 20일에는 전도총회 영입문제로 분리된 개혁 교단들이 합동을 하게 되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장로교 설립 100주년 기념예배 ‘잠실실내체육관’

9월 1일 일부 보수교단 불참에 반쪽자리 행사가 될 듯 우려의 목소리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윤희구 목사)가 한국장로교총회설립 100주년을 기념하는 ‘한국장로교총회설립100주년 기념대회’를 9월1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한다고 기독교회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밝혔다.

이번 대회는 100주년이 되는 해로서 세상의 빛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며, 한국장로교회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고찰함으로써 장로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앞으로 나아가 할 방향을 신

학적으로, 선교적으로, 기독교문화적으로 분명히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번 100주년 기념대회의 주제는 ‘세상의 빛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새로운 백년-은 장로교회가 하나로’이다. 한장총은 이번 대회를 장로교 신학과 정신에 맞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원교단의 전반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도록 하고, 한국파송선교기관 및 선교사 유가족, 타교단 지도자들을 초청해 검소하고 절제 있는 행사로

치러낸다는 방침이다.

대표회장 윤희구 목사는 “장로교 1차 총회가 시작된 지 10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교에 보여주시는 해가 너무 많지만 아직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일도 많다”며 “이번 100주년 대회를 통해 장로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천명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한 장총은 연합과 일치를 기치로 장로교 총회 100주년 기념대회인데 장로교 최대 자자인 합동총회와 일부 보수교단들의 불참하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100주년 기념대회를 앞두고 반쪽자리 행사란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지적되고 있다.

윤 대표회장은 “합동을 중심으로 한국장로교보수교단총연합회가 결성됐으며, 이기장 총회장장과 규원철 총무 등과 계속 접촉을 시도했으나 합동측에서 한장총 사업에 행정보류를 한다는 공문을 받은 상황”이라며 “협력을 구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여러가지 감정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감정들을 내려놓고 모든 장로교단들이 참석해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서울역 광장 빗속에서 울려 퍼진 ‘독립 만세’

노숙형제들과 함께하는 '광복절 기념 연합예배' 열려



“이렇게 비가 와도 광복이 옵니다. 바람이 불어도 자유 대한민국을 외칠 수 있어 좋습니다”라는 말로 광복의 기쁨을 드러냈다.

서 목사는 “공정한 사회, 약자들과 함께하는 사회를 위해 한국교회가 나서야 한다”면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통일을 여는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밝혔다.

예배 후에는 광복절 기념행사가 이어졌다. 김영진 의원은 “비는 쏟아지지만 기쁜 날에 노숙인 형제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전 이화여대 총장 장상 목사도 “광복절은 하나님이 이 나라의 역사에 개입하신

제67주년 광복절을 맞는 지난 15일 오전 11시. 서울역 광장에는 폭우가 쏟아졌다. 하지만 ‘노숙형제들과 함께 하는 연합예배’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세차게 부는 비바람에 우산조차 가눌 수 없는 상황에서 수도 광복을 주신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는 뜨거웠다.

설교자로 나선 상동교회 서철 목사는

소진우 목사 2011년-2012년 성회일정

늘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임목사 소진우 목사
PASTOR SO JIN WOO
H·P : 010-5267-1434
교회 : 02)3391-9676(대)

- 라이즈월드미션 총재
- 극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성TV칼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CTS 칼럼리스트
- 예복교회 담임

1/1 3-5 7 9-15 13 16-19 24 24-7	2011년 1월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동탄사랑교회(이종훈 목사) 한열산기도원(이영근 원장) 신년특별축복성회(예복교회) 갈멜교단 제직세미나 성마루교회(전동희 목사)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갈멜산기도원(이옥환 원장)	4-7 7-9 10-12 12-14 17 18-20 25-2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정기노회 장성교회(이광구 목사)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관음기도원(김현배 원장) 갈멜산기도원(이옥환 원장)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23 29-9/1
31-4 6 7-9 13 14-17 20 21-23 24 27-3/2	2011년 2월 캄보디아 선교대성회 효창중앙교회(최복대 목사) 술산산기도원(김형진 원장)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성신수양관(윤호균 원장) 한강중앙교회(최정규 목사) 미수교회(전영구 목사) 갈멜산기도원(유택진 원장) 원당소망교회(김영호 목사)	2-4 9-12 15 16-18 24-25 31-6.3	2011년 5월 서울서지방여전도연합성회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동대천교회(홍무열 목사) 남양주기독교연합성회(최정 이경근 목사) 선교지방문(노희선 교우위원회)
7-10 13-16 20 28-31	2011년 3월 복합축복대성회 성석교회(편재영 목사) 월계성교회(김봉하 목사)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온누리교회(조인환 목사)	6-8 13-17 17(금) 20-22 26-7.2	2011년 6월 소망인교회(이동환 목사) 선교지 방문 갈멜산기도원 (임예제 원장) 생명나우교회(성낙근 목사) 심야특별기도대성회
	2011년 4월	4-6 10 11-15 18-21 23 25-27	2011년 7월 새원교회(이영근 목사)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신학성여름특별세미나 소망기도원(연인애 원장) 갈멜산기도원 (임예제 원장) 원주변영교회(김경호 목사)

1-4 5 7 8-11 15-18 22-25 23 29-9/1	2011년 8월 금산임마누엘수양관(이수영 원장) 한열산기도원(이영근 원장)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관음기도원(김현배 원장) 갈멜산기도원(이옥환 원장) 천문기도원(최정숙 원장) 23 29-9/1	3 7-9 14-16 17 21-24 27 28-30	2011년 11월 베데스다기도원 (허영혜 원장) 반석교회(이종현 목사) 주안성결교회(진영학 목사) 성신수양관(윤호균 원장) 주님의교회(김영진 목사)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서광교회(김장수 목사)
4 5-9 12-15 18 19-22 24 26-28	2011년 9월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온누리복음교회(임기호 총재) 동광 할렐루야 교회(전 웅 목사) 성인교회(이현국 목사) 고단총회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26-28	5-7 8 12-16 19-22 25 26-28	2011년 12월 성광교회(유이연 목사) 성신수양관(윤호균 목사) 인도 선교 성회 소망중앙교회(연인애 원장)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반석중앙교회(이영구 목사)
2 3-5 10-12 13 17-19 23-26 27 28 30 31-11/2	2011년 10월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양주 비전교회(김현현 목사) 진전 퇴계원기독교연합성회(박건익 회장) 성신수양관(윤호균 원장) 온천교회(서대동 목사)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온누리 금식기도원 갈멜산기도원(연인애 원장)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평생교회(김상용 목사)	2-4 6 9-11 13 16-18 19 22 23-26 29 30-1/2	2012년 1월 천성교회(김영목 목사) 오산리금식기도원(조희연 원장) 온사랑교회(최대식 목사) 한열산기도원(이영근 원장) 신성교회(정대호) 성신수양관(윤호균 원장)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광운기도원(김현배 원장) 예제교회(유준모 목사) 현동교회(송우종 목사)
	2012년 2월	6-9 12 13-15	2012년 2월 갈멜산기도원(이옥환 원장) 예수소망교회(신동식 목사)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신일장로교회(이광수 목사)

16 19-22 27-29	2011년 11월 성신수양관(윤호균 목사) 평강교회(박성주 목사) 증평평강교회(고영철 목사)	5-7 18 22	2012년 3월 축복대성회 수원교회(강성우 목사)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2-4 5-6 9-10 15 16-18 23-25 27	2012년 4월 하예성교회(강대총 목사) 성소기도원(박정연 원장) 정기노회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동탄제자교회(이석원 목사) 주사리교회(김주철 목사)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31-3 7-9 13-16 21-24	2012년 5월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우리교회중앙교회(이영진 목사) 성신교회(송영도 목사) 광동교회(김동기 목사)
3-6 7 10 12-14 17-30	2012년 6월 추천양교회(윤경구 목사) 갈멜산기도원(임예제 원장)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베데스다교회(허영혜 목사) 2주년축신대성회(예복교회)	2-5 8	2012년 7월 사명자영성회(송요섭 원장)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7 3-5 10-12 17-21 23	2012년 8월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한열산기도원(이영근 원장) 광운기도원(김현배 원장) 갈멜산기도원(이옥환 원장) 성신수양관(윤호균 원장)		2012년 9월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한열산기도원(이영근 원장) 광운기도원(김현배 원장) 갈멜산기도원(이옥환 원장) 성신수양관(윤호균 원장)
	2012년 10월 퇴계원장로교회(김동원 목사) 정기노회 진전교회(송대규 목사)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천보산기도원(유택진 목사) 예수비전교회(이승원 목사)		2012년 11월 선교지방문 성마루교회(전동희 목사) 경천교회(이원경 목사)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예수비전교회(이승원 목사)
	2012년 12월 부흥성회(예복교회) 임마누엘교회(정태원 목사) 예원교회(한규식 목사) 필리핀선교회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민복운 신학생돕기 대성회 열어 장학금 전달

장학금은 성회현장에서 선발된 미래 목회자들에게 전달

사단법인 민족복음화운동본부(총재 이태희 목사, 대표회장 김영남 목사, 총본부장 김대성 목사)는 교파를 초월한 신학생을 돕기 위한 전국 사명자 특별 대성회를 지난 8월 13일(월) 오전부터 18일(토) 오후까지 7일간 오산리최자실기념급식기도원 대성전에서 열었다.

교계와 신학생들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진 가운데 열린 이번 특별 성회는 한국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있는 일이다. 백석신학대학 학장 정인찬 박사는 "세계에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신앙과 신학의 열정이 가득한 우리나라에서 이를 뒷받침할 영성의 장이 마련되었다는 것은 기독교 역

사상 대단한 사건이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대표회장 김영남 목사는 한국교회의 희망은 신학생이며, 신학생이 살아야 한국교회가 산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큰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원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많은 세미나가 있었지만 교회 부흥은 여전히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면서 안타까워했다. 매년 민복운이 주최하는 목회자 세미나 역시 효과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민복운은 금년부터 전국에 있는 군소교단 신학교를 포함한 207개 신학교, 교파를 초월하여 신학생을 돕는 특별 대성회를 열어

현금 전액을 이 성회에 참여하고 등록한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하게 된 것이다. 아쉽게도 홍보 부족으로 전국에서 신학생들이 많이 오지 못했지만 2013년에도 제2회 신학생 돕기 특별성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회장은 또 장학생을 돕기 위한 세미나를 통해 신학생들이 은혜를 받고 깨우쳐서 참제된 한국교회를 살리는 사명자들로 재무장되어 대한민국 교회와 민족을 살리는 민족복음화의 주역들이 되기를 기원했다. 대표회장 김영남 목사는 성회 6일째를 맞아 성회에 참석한 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장학금

을 전달한 후 김 대표회장은 한국교회의 우수한 목회자들이 이번 특별 대성회를 위하여 헌신을 다한 강사들을 향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인사했다.

이번 특별성회 강사진은 시간 순으로 전형조 목사, 임성은 목사, 정인찬 박사, 이원호 목사, 박영길 목사, 윤호균 목사, 전광훈 목사, 이태희 목사, 조성철 목사, 이영훈 목사, 김영남 목사, 이삼열 목사, 이효은 목사, 김상길 목사, 이상철 목사, 소강석 목사, 양준원 목사, 김정훈 목사, 김대성 목사, 노수우 목사, 장윤식 목사, 장순직 목사, 김기성 목사, 이재희 목사 등이다.

영성목회연구회 제15회 전국교역자 수련회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사역에 헌신하는 사역자 되자"



영성목회연구회(총재 김자연 목사·사진)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양평 왕성교회 십자수기도원에서 전국교역자 영성수련회를 갖고,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헌신하는 사역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송삼용 목사(개혁주의 영성아카데미 원장), 송준인 목사(종신대 석좌교수) 등이 강의했다.

김근수 교수는 '종말 비유 해석'이란 주제를 통해 "종말 비유는 때로는 그 임박성을 강조하고 때로는 그 지연성을 강조하기도 하는 흐름을 지니고 있다"며 "재림의 임박성을 강조하면 현재의 책임과 윤리가 무너지고, 그 지연성을 강조하면 내세의 소망과 기쁨이 무너진다. 그러나 임박성 혹은 지연성을 보이는 것은 영적 긴장과 각성에 있음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올해 '제15회 전국 교역자 영성수련회 2PM(Praying & Preaching Ministry)'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주제 그대로 올해 수련회는 기도와 말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김자연 목사는 "매년 여름에 개최한 수련회가 어느덧 15년째가 되었다"며 "수련회를 통하여 영적으로 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또 목회 현장에 큰 도움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 때마다 우리 수련회가 인간들의 모임이 아닌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천국잔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 목사는 "금번 수련회의 주제는 기도와 말씀"이라면서 "목회자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직 신학적으로 말씀연구만 한다면 하나님의 심오한 경륜과 섭리를 아는 데 어렵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없는 학문연구로 전락하게 된다. 개혁주의 신학에서의 목회활동은 '가도와 말씀'이다"고 강조했다.

수련회는 새벽기도회와 세미나 그리고 저녁 부흥회 등으로 이뤄졌으며 부흥회는 총재인 김자연 목사가 주강사로, 세미나는 김근수 교수(칼빈대),

송삼용 목사는 '총체적 영성'이란 주제로 강의했다. 그는 "총체적 영성은 전 삶을 포괄하는 영성"이라며 존 스토틀를 중심으로 전개했다. 송 목사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을 생각할 때 가장 시급한 영성 모델이 총체적 영성"이라면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인데 세상에 그 영향력이 없기에 총체적 영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준인 목사는 '생태계 위기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란 주제를 통해 "하나님 중심주의는 현대의 세속적 가치관들의 틀을 깨트린다"며 "인간이 우주의 중심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김관선 목사(산정현교회), 조현석 목사(해운대신일교회), 조상용 목사(대전중부교회), 김영욱 목사(동문교회), 남태섭 목사(대구서부교회), 최종천 목사(분당중앙교회), 강재식 목사(광현교회), 최해권 목사(청운교회), 권성목 목사(청암교회), 김창근 목사(광현교회) 등이 사경회와 새벽기도회 등 각 집회에서 말씀을 전한다.

기하성여의도, 한기총 탈퇴를 전제로 행정보류

탈퇴는 총회 인준 후에, 그 전까지 행정보류... 20일 정기실행위원회에서 결의



기하성여의도총회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대해 '탈퇴를 전제로 한 행정보류'를 결의해 향후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하성여의도총회(총회장 이영훈)는 20일 오후 여의도순복음교회 베들레헴성전에서 제61차 제2회 정기 실행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실행위의 핵심 안건은 지난 실행위를 통해 공개된, 조용기 원로목사의 신상 문제를 언급하며 비판한 내용이 담긴 한기총 발신의 비공식 문서 처리 건이었다. 이 일로 인해 한기총 명예회장직을 사퇴한 최성규 목사는 "지난번 실행위원

회에서 이 문제에 관해 임원회가 충분히 논의한 후 오늘 실행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만큼, 이 자리에서 실행위원들이 확실한 결정을 내려줬으면 한다"며, 탈퇴를 전제로 한 한기총 행정보류를 건의했다.

한기총 탈퇴는 총회의 인준을 거쳐야 실효가 되므로, 총회 전까지 실행위원회에서 행정보류를 결의하자는 것이다. 위원을 대부분이 이 문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은 가운데, 좀 더 신중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최근 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가 조용기 원로목사를 방문해 이영훈 목사에 대한 음해성 발언을 한 것이 밝혀지면서 분위기가 다소 격앙되기도 했다.

제후사 뉴스미션에 의하면 허동진 장로는 "지난번 원로목사와 관련한 문건에 이어 이번에는 총회장 목사를 음해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최근 홍재철 목사가 원로목사와 면담을 갖고, 이영훈 목사가 한기

총 고소인들에게 돈을 대주고 있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진상 파악을 위해 홍재철 목사와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몇몇 장로들과 함께 교회를 직접 찾았으나 결국 만나지 못했다"며 "한기총을 대표하는 분이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우리 교회 일에 관여하고, 원로목사와 총회장 목사를 이간질하고 있다. 이런 명백한 음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이영훈 목사는 "홍재철 목사에게 이에 대한 답변을 31일까지 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며 "답변을 받은 후에 홍 목사의 책임 여부가 확실해지면 그때 다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번 건의 처리를 차치하고라도 더 이상의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기총에 대한 입장 표명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몇몇 위원들에 의해 거듭 제기됨에 따라, 실행위원들은 탈퇴를 전제로 한 한기총 행정보류를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기하성여의도총회가 이번 결의로 한기총에 대한 분명한 선 긋기에 나선 가운데 양측의 갈등이 어떻게 풀려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웨신) 제97회 정기총회 공고



총회장 성흥경 목사

- 일 시 : 2012년 9월 13일(목) 개회예배 오전 11시
- 장 소 : 여전도회관 2층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1(1호선 종로5가 역 2번 출구)
- ☎ 02-708-3100



웨신총회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신길5동 442-105호(2층)
☎ 02-835-2607-7 팩스 02-835-2608
서 기 : 010-5678-9950 총 무 : H · P 010-8602-3009
<http://ws21.onmam.com/> E-mail sec21ch@hanmail.net



어머니기도협, ‘독도는 하나님 주신 한국 땅’

그리스도의 복음, 나라 경제회복 통일, 대선을 위해,
‘종교다원주의 (wcc)사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 기도회 가져



대한민국어머니기도협의회(대표회장 이애라 목사 이하 협의회는 13일 오전 종로 백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한국교회여 일어나자,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라는 주제로 67주년 8.15광복절을 맞아. 기도대성회를 갖고 독도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 땅임을 재확인했다.

1 2 3부로 진행된. 기도대성회는 이해정 목사의 사회로 1부예배가 시작되어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 특별축하공연, 주선에 교수의 환영사 등 이어진 2부 예배에는 홍관옥 목사의 사회로 문희성 목사의 기도와 변천옥 목사의 성경봉독, 특송 말씀에"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로 이애라 목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이규희 목사 와 최명애 목사의 축사와 유순임 목사의 축도 등으로 진행되었다.

3부 통성기도 시간에는 ‘경제회복과 사회 풍조를 위해’ 오영자 목사,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고를 위해’ 배기옥 목사, ‘이 땅에 그리스도의 널리 전파되기 위해’ 김태순 목사, ‘나라의 안정과 평화통일을 위해’ 김옥영 목사, ‘대선과 좌파 증폭세력, 전교조 퇴치를 위해’ 이기쁨 목사, ‘종자연들이 이 땅에 근절되기 위해’ 이규영 목사, ‘종교다원주의 (wcc)사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 임성자 목사, ‘독도가 우리 땅임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주녹자 목사, ‘어머니기도협회를 위해’ 이윤정 원장 이 각각기도 하고, 광복절노래, 만세 3창과 전덕기 권사의 폐회인사와 다함께 통일의 노래로 마쳤다.

경북북부 제2교도소 수용자들에게 삼계탕 제공



이곳 제 2교도소는 우리나라의 가장 중금 교도소이다.

일명 날아가는 새들도 무서워 피해 간다는 곳이다. 그러나 이곳에 사랑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바로 교정협의회와 대구은행 사회 공헌부분들이다. 올 해 더위는 최고 40도가 넘고 사람들은 더위에 힘들어 하였다. 이런 무더위 속에 경북북부 제 2교도소 담 안에 있는 수용자들도 더위에 말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묵묵히 자신들을 돌아보고 있는 수용자들이 많이 있다.

어떤 수용자는 성경책을 필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어떤 수용자는 책을 읽으면서 미래를 준비하기도 한다. 경북북부 제 2교도소 문병일 소장은 본 기자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면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여 주었다. 이번 삼계탕 더위 때 사랑의 손길이 있었다고 했다.

초복 때는 경북북부 제 2교도소 교정위원회에서 수용자들에게 삼계탕을 제공하였고, 중복 때에는 포항지부 교정협의

에서 삼계탕을, 그리고 말복 때에는 대구은행(DGB) 사회공헌부에서 전 수용자들에게 삼계탕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더위 속에서 목말라 하는 수용자들에게 생수를 기부하여 주었다는 것이다.

특히 대구은행(DGB)사회공헌부에서는 앞으로도 수용자들에게 도움을 주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경북북부 제 2교도소 사회복지와 장우영 과장은 대구은행(DGB)사회공헌부에서 이렇게 수용자들을 위해 기부와 사랑을 주심에 감사함을 전한다고 하면서 교도관들도 더욱 더 수용자들이 수용생활을 잘 하면서 사회복귀를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하였다.

아마 전국 교도소에서 최초로 삼복 더위 때 수용자들에게 삼계탕을 통해 이들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면서 수용생활 잘 하도록 격려한 교도소일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님들도 담 안에 있는 영혼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히브리어 13장 3절이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 받는 자들을 생각하라”고...

포항에서 이기학 기자(포항지사장)

서울경찰청(김용판 청장)은, 개그맨 김원효씨와 함께

8월 17일 낙후된 ‘교통문화개선’을 위해 경찰버스 및 시내버스에 개그맨 김원효 씨의 유행어 “안돼~”와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 문안 부착 행사를 가졌다.이날 김용판 청장은 “음주운전과 교차로 끼리물기, 오토바이 인도주행이라는 낙후된 교통문화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시민모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경찰청은 앞으로 모범운전자회 개선타입에도 홍보용 스티커를 제작 부착하는 등 교통문화 개선을 위한 홍보를 확대



해 나갈 것이며 서울의 각 경찰서에도 교통문화개선 홍보 스티커를 비치하여 일반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국정부는 43일째 억류중인 전재귀 목사를 즉각 석방하라!



탈북자를 돕다 중국공안에 붙잡혀 43일째 억류된 전재귀 목사에게 대한 가혹행위규탄 및 석방 촉구



탈북자들에게 구호활동을 펼치다 7월 9일 중국 할빈공항에서 중국공안에 체포된 부산 하나로교회 전재귀 목사(51·사진)에 대한 불법구금규탄 및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부산기독교시민사회책임 및 탈북난민복송반대 부산시민연대 회원 20여명은 8월 21일 오전 10시 부산중국어사관 앞에서 지난 3월 중국에서 조선족인줄 알고 만난 5명의 탈북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등 구호활동을 펼치다 체포된 전재귀 목사에게 대한 가혹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석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재귀 목사의 부인인 박성자 사모는 “남편이 풀려나길 기도하며 기다릴텐데 저의 마음이 더욱더 답대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며 “이 상황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순종하겠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주최측은 이날 전재귀 목사에게 대한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중국영사관측에 전달하는 한편,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기자회견과 함께 다음주부터 10만명 서명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성명서〉

중국정부는 43일째 억류 중인 전재귀 목사에게 대한 가혹행위를 사죄하고 즉각 석방하라!

전재귀 목사(51세)는 예장 국제합동 부산하나로교회(담임목사 이재우) 소속 목사로 2010년부터 중국에서 조선족들을 돕는 활동을 해오다 3월 조선족인 줄 알고 만난 5명의 탈북자들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하지 못하고 숙소를 제공하는 등 구호활동을 펼쳐왔다. 그런데 지난 6월 중순 한국을 방문하고 7월 9일 중국으로 입국하던 중 할빈공항 입국장에서 체포되어 43일째 산둥성 연태시 간수소(구치소)에 억류되어 있다.

이에 가족대표가 중국을 방문하여 사태파악을 위해 면회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였고 영치금도 한국영사를 통해 접수하라며 거절당한 상태로 현재 청도영사관을 통해 사태를 파악 중에 있다.

외통부의 확인결과 전 목사는 중국 산둥성 변방무대 무장경찰 당국으로부터 “탈북자밀입국알선죄”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 있으며 지난 8월 6일 한달 만에 실시된 영사면담을 통해 체포 연행되는 과정에서

정에서 중국공안원에게 압수당한 본인 핸드폰으로 수차례 머리를 가격당하고 두 차례나 숨이 멎을 정도로 폭질당 당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전재귀 목사는 중국조선족을 돕는 정당한 활동을 하였으며 북한에서 먹고 살길이 없어서 탈북한 탈북자들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할 길이 없어서 최소한의 숙소를 제공하는 등 구호활동을 펼쳤다.

이런 전재귀 목사를 불법체포·구금·가혹행위를 가하고 구치소에 억류시킨 사실은 중국이 문명국임을 의심케 한다.

1. 중국정부는 탈북자를 돕고 구호활동을 펼친 전재귀 목사에게 대한 가혹행위를 사죄하고 관련자를 처벌하며 전 목사를 즉각 석방하라!

2. 한국정부는 전 목사에게 대한 가혹행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중국정부에 관련자의 엄중 문책과 재발방지 및 전 목사의 석방을 강력 촉구하라!

3. 양국정부는 각각 수감된 해당국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 조치하며 탈북난민과 북한인권운동가들의 인권을 보호하라!

대한예수교장로회 공덕교회

2012년 표어 :
성령의 은혜와 말씀이 왕성한 교회(행 6:7절)



담임 서명범 목사

담 임 : 서명범 목사(본지 운영이사)
시무장로 : 송두현 조길수 박성현
교육전도사 : 김민호

<예배안내>

주일예배 오전 11시 오후 2시
삼일방 오후 8시 금요일기도회 저녁 9시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동 295번지
전화 : 0411853-9966 855-0691
홈페이지 http://lov153.cafe24.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설립하여 주신 주님의 교회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담임 모상련 목사

주일예배 시간 장소

요일	예배	시간	장소
주 일	보통예	1회 오전 7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2회 오전 11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저녁예배	오후 7시	3,4층 대 예배실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 일	금요예배	저녁 8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새벽예배	오전 5시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청년부예배	오후 5시	5층 영산강홀
주 일	대학부예배	오후 5시	5층 두란노홀
주 일	유치부	1회 오전 9시 30분	2층 새롭방
		2회 오전 11시 30분	
주 일	유초등부	1회 오전 8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2회 오전 12시 30분	3층 아로미방
주 일	중등부	오전 9시	3,4층 대 예배실
	고등부	오전 11시	2층 영산강홀
주 일	영아예배	오후 1시 30분	5층 두란노홀

전남 목포시 북항동 1671-15 (북항주책단지)
대표전화 : (061)272-4908, (061)278-0692 팩스번호 : (061)278-0693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담임 광완근 목사 (신문방송 운영이사)

<예배안내>

주일오전 : 오전 11:00
주일오후 : 오후 2:00
수요일 : 오후 7:30
새벽기도 : 오전 6:00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전화 : 041-854-3676 H.P 018-320-1507

대한예수교 평안교회 장로회



담임 장승현 목사 (본지 논설위원)

“가족같이 가정같이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로.....”

충남 당진군 송악면 봉곡리 55-6
전화 041)356-0644, 팩스 041)356-0646
E-mail : sunghyun732@hanmail.net
H.P 011)9027-9712

불교의 윤회설(輪回說) ③

윤회란 범어 samsara (삼사라)의 번역으로, “흐르다”, “움직이다”는 뜻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흘러 맴돈다”는 의미로 유전(流轉)이라고도 한다. 즉 윤회란 모든 생명체가 마차 수레바퀴가 끊없이 굴러가듯이 자신이 지은 업보에 따라 끝없이 육도(천상 인간 수라 아귀 지옥 축생)를 윤회하며 죽음과 탄생을 반복한다는 뜻이다

윤회설 배경

윤회설은 주전 1500년경 유럽의 아리아족들이 북인도의 편잡지역을 침공하여 원주민들을 영구적으로 지배하기 위하여 정치적인 목적으로 만든 교리로서, 주전 6~4세기경 힌두교가 이 교리를 수용했고, 기원전 3~2세기경 불교가 이 교리를 수용하게 되어, 불교의 인생관과 세계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교리이다.

육도 / (1) 천상계(天上界) : 천상계란 하늘에서 사는 자들의 세계, 신들의 세계로서 천상계는 상당히 오래 살 수 있는 장수가 보장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천상계에 태어나도 자신의 선한업보가 다하면 다시 죽어 윤회의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천상계도 고통의 세계이며,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천상계에서도 벗어나서 모든 육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죽음도 다시 태어남도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을 열반이라고 부른다.

(2) 인간계(人間界) : 인간계란 사바세계라고도 하는 인간세상에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한다. (3) 아수라계(阿修羅界) : 아수라계란 산스크리트어로 아수라[asura]이며 악마들이 항상 공격을 걸어 싸움을 벌인다는 곳이다. 가끔 신문이나 TV에서 싸우는 난장판이 되었을 때 “아수라장이 되었다”는 식의 기사를 보는 것처럼 악귀와 괴물의 싸움만 있는 세계를 의미한다. 아수라는 동물의 지위보다는 조금 높긴 하지만 아집이 강하고 사나워 언제나 싸움만 일삼는 세계이다

(4) 아귀계(餓鬼界) : 아귀계란 산스크리트어로 프레타[Preta]인데, 귀신들에게 잡혀서 고통을 받는 세계로서 늘 굶주림만 있는 곳이다. 목구멍은 마치 바늘처럼 가늘고 배가 부어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아무리 먹어도 배는 항상 고프른 세계를 말한다. (5) 지옥계(地獄界) : 지옥계란 것은 산스크리트어로 나라카(naraka)인데 까르마에 따라 가게되는 지옥도 여러 가지가 있다. (6) 축생계(畜生界) : 사후에 동물의 세계로 환생되어 괴로움을 받

는 세계를 의미한다.

죽은 뒤에 어떤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것인가를 결정하는 키는 업보(범어로 까르마- kamma)이다. 즉 내가 현생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선한업보를 쌓았으면 더 좋은 세계에서, 나쁜 업보를 쌓았으면 나쁜 세계에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내가 어떤 업을 쌓았으면 반드시 내가 그 업에 대한 보응을 받아야한다 그래서 불교를 인과응보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다.

해탈이란 무엇인가? 나의 모든 업이 다 사라져서 더 이상 태어나고 죽



불교의 중요한 교리중의 하나가 윤회사상이다

는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고통도 기쁨도 느끼고 감정도 없는 완전히 무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윤회설의 문제, / 내가 전생에서 지은 업보에 따라 이생의 생명이 결정된다는 것이 윤회설이다. 그렇다면 전생의 업보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게 될 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아야 회개하고 더 좋은 세상에 태어나기 위하여 노력이라도 할 것이 아닌가? 그러나 전생에 내가 어떤 업보를 쌓았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아무도 기억을 하지 못한다. 왜 내가 이생에서 이런 고생과 저주를 받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니까,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며 원망과 탄식만 나오는 것이다.

윤회설에 따르면, 내가 지금 누구에게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은 전생에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악한 행동을 갚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 사람에게 계속 악한 행동을 해야 그 사람의 업이 소멸되고, 그 사람은 다음 생에 더 나은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는 이론이 되지 않는가? 물론 불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윤회설의 이론을 내세우며 자신의 죄악을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다. 잘못하면 윤리와 도덕이 실종될수 있는 무서운 이론이다.

또 나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전생에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생각하

게 된다. 그래서 현재 내가 지금 범하고 있는 죄를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고, 모든 것을 전부 전생의 업으로 책임을 돌리며, 책임회피의 인생을 살게 된다.

무아설과 윤회설의 모순 / 그리고 윤회설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이론인 무아설과 모순적인 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무아설(無我說)이란 나라고 하는 자아가 없다는 교리이다. 그런데 윤회하며 끝없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반복하기 위해서는 나라고 하는 실체가 필요하다. 나라고 하는 실체가 없다면 어떻게 죽음과 탄생을 반복할 수 있는가?

무아설의 입장에서는 윤회의 주체가 인정될 수 없으며, 윤회의 주체를 인정하는 것은 곧 실재적 자아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아설이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무아설과 윤회설은 절대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이론이다

그러나 윤회설과 무아설은 불교이론을 지탱하고 있는 두 개의 큰 기둥이기 때문에 두 이론 중 어느 것도 포기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석가 사후

에 불교가 여러 부파로 갈라지는 부파불교시대 때부터 불교 사상가들은 이 모순점을 해결해보려고 고심을 하였다.

석가이후 불교사상사의 주요과제는 어떻게 하면 무아설과 윤회설을 다 인정하면서 불교교리를 세워나가는가 였다. 그러나 아직도 해답은 나오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무아설도 윤회설도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진리 :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 그리고 히브리서 9:27말씀대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을 뿐이다. 보혈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 재림시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된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부활하여 백보좌심판을 거쳐 유희불못에서 세세토록 고통가운데 살아야한다

윤회설은 마귀의 거짓말이다. 윤회설을 믿게 되면 내가 지은 업보를 몇 억겁동안 윤회하면서 내가 다 갚아야 한다. 이 땅 살면서 구원받을 필요도 없다. 다음 생애가 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원자 예수도 필요 없게 된다.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찬송한다. 아멘

신용주 목사(한일교회 담임)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원장 : 박순중 목사
(본지 상임이사)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 환영)

☎033)541-0687 / 010-7405-9191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사랑.섬김.행복이 가득한

강릉 정동진 산성그리스도의교회

SANSEONG CHURCH CHRIST

부설/장기 요양원 정동진 희망원



담임목사 최낙현 원장

- ◎ 국제 153부흥협의회 대표회장
- ◎ 세계교회부흥협의회 운영회장
- ◎ 천안총회신학신대원설천선학교수
- ◎ 서울 칼로신학연구원 교수

예/배/시/간/안/내

▣ 주일 오전 10시30분 ▣ 주일 오후 1시 1시30분 2시

210-822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산성우리 255-12
TEL:(033)655-0691,0692 / H/P:010-6409-0091
E-mail:cnh1091@hanmail.net

MTR-school 성경 연구원

구역(벤아세르 MT)과 신역(TR원문)에

의한 강의로 사도교회로 돌아가는 신앙인 교육

- 계시록원전
- 히브리어문법
- 헬라이어문법(전 준덕 교수)
- 일기 쉬운 52주 헬라이어문법 저자강의
- 영어문법
- 계시록



원장 김수정
(jintv방송신문 운영이사)

- 일시: 매주 (화) 오전 9시부터 강의
- 장소: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도평리 산 1번지
- 문의: 031-767-7651, 010-7520-7651
- 후원: 작은 구름의집 선교회
- 마라나타 다메섹교회

예수님의 최후의 하루와 교회력

니다.

* 윤회절 예비

성경력:5772년 1월14일 낮, 민간력:5772년 7월14일 낮, 태양력:2012년 4월6일 오후, 마26:17~19,막14:12~16, 눅22:7~13, ① 마태는 무교절의 첫날, 마가는 무교절의 첫날 즉 양 잡는 날 누가는 윤회절 양 잡는 무교절이 이론지라, ② 마가는 두 명의 제자를 보냄으로 기록 누가는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기록, ③ 마태는 너희는 성의 아무에게 가라, 마가는 너희는 성내로 들어가라, 누가는 보라! 너희가 성으로 들어갔을 때 ④ 마가는 물 한 동이를 데고 가는 사람이 너희를 만나리니 누가는 물 한동이 가지고 가는 한 사람이 너희를 만나리니, (사람은 남성명사이므로 물동이 가진 자는 여자 아닌 남자입니다) ⑤마태는 그래서 너희는 그에게 이르라, 마가는 너희는 그를 따라 가라, 누가는 너희는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그를 따라가서 ⑥ 마태는 선생님이 내 때가 가까왔으니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마가는 선생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누가는 선생님에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⑦ 마가는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누가는 그리하면 그가 잔치를 베풀 큰 다락방을 네게 보이리니 (빨간색 글씨는 개역성경과 개역 개정판 성경에 삭제한 단어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베풀 큰 다락방 - α

α ναβαφ(아나게온), 성령강림한 다락방 - ιν ερον(휘페론), * 최후 만찬(2012년) 성경력:5772년 1월14일, 해진 후(밤 일경), 민간력:5772년 7월14일, 해진 후 ~ 10시경, 태양력:2012년 4월6일, 자정경 ~ 오전4경, 마26:17~25, 막14:12~21, 눅22:7~13, 요13:1~30 * 제자들 배반 / 마26:20~25, 막14:17~21, 눅22:21~23, 너희중의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마26:21, 막14:18), 11제자들은 “주여, 그제 나나이까?” (마26:21, 막14:19), 물었으나 이스카리옷 유다만이 선생님(랍비)이여, 그제 나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마26:25),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자 만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 주의 만찬 제정 / 막14:22~25, 눅22:14~20, 고전11:23~26 * 베드로배반의 예고 / 마26:30~35, 막14:26~31, 눅22:31~39, 고전11:23~26 * 갓 세 마네 기도 / 마26:30~46,막14:32~42, 눅22:39~46, 요18:1, 성경력:5772년 1월14일이경 시작, 민간력:5772년 7월14일 오후10시, 태양력: 2012년 4월6일 새벽4시경, * 이스카리옷 유다 배반 / 성경력:5772년 1월14일이경 끝, 민간력 : 5772년 7월14일 자정경, 태양력:2012년 4월6일 오전6시, 마26:47~56, 막14:43~52, 눅22:47~53, 요18:1~11

* 종교재판(3차) / 성경력 : 5772년 1월14일 삼경 시작, 민간력 : 5772년 7월14일 자정 ~2시, 태양력 : 2012년 4월 6일 오전 6시경 ~8시, 제1차 가이바의 장인 안나스에게 안나스의 질문(요18:13-23), 그의 제자들과 교훈에 대하여 물음, 예수님의 대답, ①드러내어 세상에 말씀하심, ②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치심, ③ 은밀히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심, 제2차 가이바에게 마26:57~68, 막14:53~65, 눅22:66~71, 요18:24, 제3차 공회심문,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이려고 의논 한뒤에 결박하여 끌고 가서 넘겨줌, 마27:1, 막15:1, 눅23:1, 요18:28

* 빌라도에게 넘겨줌(새벽) / 성경력:5772년 1월14일 밤 사경 즈음, 민간력 5772년 7월14일 오전 6시경, 태양력 : 2012년 4월6일 정오경, 마27:2, 막15:1, 눅23:1, 요18:28,

* 행정재판(3차) / 성경력:5772년 1월14일 사경 즈음, 민간력:5772년 7월14일 오전4시경~6시경, 태양력:2012년 4월6일 오전10시경~정오경 1. 제1차 재판(빌라도의 1차 심문): 마27:11~14, 막15:2~5, 눅23:2~6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도, 하시고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할때에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마27:12),

2. 제2차 재판(헤롯 심문): 눅23:8~12, 1) 예수님을 보고 크게 반가워했다. 2)오랫동안 그분을 보기를 원했다. 3)행하시는 기적을 보려고 바랬다. 4)말은 말로 물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아무것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 5)자기군사들과 함께 그분을 무시하며 조롱했다. 6)화려한 긴 옷을 차려입혀서 빌라도에게 보냈다.

3. 제3차 재판 / (빌라도의 2차 심문) 마27:15~26, 막15:6~15, 눅23:13~25, 요18:33~19:4, 1)총독이 그들에게 응대하여 이르되,“너희는 이들 중의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2)빌라도가 자기 가 아무것도 이기지 못하고 도리어 폭동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었다. 3)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 4)그가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5)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었다.

결론: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기는 했으나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놓아 주려고 애썼습니다. 다음호에서 계속됩니다.

김수정 원장

성경연구원
jintv방송신문
운영이사



바른성경선교회

한빛교회

매주 수요일 오전11시~오후4시까지 특별예배나



장사 손기태 신학박사
(본지 교론)

• 강의내용

- (1) 하나님의 구속사본론 일곱 절기(레23)
- (2)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표징이 일곱 절기 안에 있다
- (3) 노아의 때를 알면 인자의 때를 안다.(마 24:37)
- (4)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7가지 동질성(마 2:1-12)
- 대상 :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의 목사, 전도사, 일반성도들
- 광고후원 : 작은 구름의집 선교회
- 강사의 저서 : 20여종 특별할인

♣ 참석자 전원에게*언약의 무리*저서 1권씩 기증. 마라나다!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경춘로 855-37
(경춘 전철 금곡역 차로 5분 거리)
전화 031)592-7079, 594-3733(Fax 견용)

설교

제6부 보배로운 산돌① (벧전 2:4~9)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석으로 만드시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극히 영광된 것을 보여주시고, 그 보배로운 목격을 영적으로 믿는 자에게 시련과 연단을 거쳐 주석과 찌꺼기를 빼내시며, 보배로운 믿을 위에 세우고 순교할 자로 확정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배로운 그릇으로 사용하시다가 보배로운 피를 흘려 순교케 하신 후 결국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견고하고 변함없는 산돌이 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도 산돌 되게 하십니다.

살아있는 보석 / 예수님은 하나님의 귀중한(보배로운) 산돌, 즉 하나님의 살아있는 보석이십니다. 예수께 나아오면 우리도 산돌, 즉 살아있는 보석이 된다 그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석이 되어진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인 집으로 완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적인 집으로 완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보석으로서 영광을 누리며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6절 말씀은 이사가 28장16절에 이미 예언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귀중한 보배(비메)가 되나,

예수를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예수께서 오히려 거치는 돌이며 실족하게 하는 돌(시 118:22)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오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보석으로, 영적인 집으로 만들어지고 길러지고 온전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하십니다.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들의 용모에 놀라지도 말라.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네게 말하려는 나의 모든 말을 네 마음에 받고 네 귀로 들으라. 가라, 너는 네 백성의 자손들, 사로잡힌 자들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그들에게 고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던 시기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대성전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이마를 금강석 같게 했다는 것은 에스겔의 속종심을 금강석과 같이 단단하게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신체부위에서 그 사람을 대표하는 부위는 얼굴이고, 또 얼굴 중에서도 대표되는 곳은 이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이마에 인을 치고 부식물보다 단단한 금강석 같게 하셔서,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선지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실 때 모든 피조물들이 복종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단계로 하나님의 보석으로 만들어진 상태가 어떠한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겔 3:8~11 보라, 내가 네 얼굴을 그들의 얼굴들에 맞서도록 강하게 하였으며 네 이마를 그들의 이마들에 맞서도록 강하게 하였도다. 내가 네 이마를 부식물보다도 단단한 금강석 같게 하였으니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들의 용모에 놀라지도 말라.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네게 말하려는 나의 모든 말을 네 마음에 받고 네 귀로 들으라. 가라, 너는 네 백성의 자손들, 사로잡힌 자들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그들에게 고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던 시기에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운 대성전자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이마를 금강석 같게 했다는 것은 에스겔의 속종심을 금강석과 같이 단단하게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신체부위에서 그 사람을 대표하는 부위는 얼굴이고, 또 얼굴 중에서도 대표되는 곳은 이마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내 것'이라고 이마에 인을 치고 부식물보다 단단한 금강석 같게 하셔서,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선지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은 마음이 위낙 완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척하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금강석으로 만들어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니 배짱이 두둑하고 담대하여 상대가 듣든지 그만두든지 열려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해나 대적자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에스겔을 무너뜨릴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세계에서 보석을 가장 잘 가공하는 나라로 이스라엘을 꼽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보물(출 19:5)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어느 민족보다 많은 연단과 간섭을 받게 하셨기에, 오늘날 물리적인 보석도 잘 가공하는 나라가 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금강석은 100% 탄소로 이루어진 광물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두드려도 부서지거나 깨지지 않는 가장 단단한 돌로 값비싼 보석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단단한 금강석 같게 하셔서 계획을 이루셨던 것처럼, 보잘 것 없는 우리를 견고하고 값진 금강석 같이 만드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담임
대한노회장
본지 성일이사

칼럼

정든 갈릴리

고향은 추억을 생각나게 하는 곳이다.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지난날들이 너무도 빨리 지나갔음을 아쉬워 하게 된다. 꿈을 가지고 장래의 목표를 정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지낸 추억들을 생각하면 혼자만의 웃음을 웃고 또한 쓸쓸함을 느낄 때가 있다.

오늘 우리는 너무도 빠른 변화 속에서 살고 있다. 인터넷을 비롯한 각종 스마트 폰을 가지고 거리에서나 기차, 전철 안에서 사회 전반적인 뉴스를 접하고 있으며, 젊은이들은 각종 게임을 하는 등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고 있다. 급속한 발전으로 노인들과 젊은이들과의 생활의 거리가 멀다.

지난날 철의 장막이라고 불렀던 북한의 실상을 이제는 내손 안에서 모든 뉴스를 접하고 있다. 최근 북한군 핵심인사 이영호 참모총장의 직위를 해제한것은 북한군 내부권력구조에 복잡성이 있다고

하지만, 타격적인 변화에 우리는 세심한 주의로 살펴봐야 한다. 또한 우리의 국방이 완전한가를 재 점검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젊은 세대들에게 확고한 국가관을 심어주어야 한다. 국가관이 없는 자유와 안일함은 자칫 시장의 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철저히 법을 준수해야 하며 준법 속에 자유와 성장이 있는 것이다. 자유를 앞세워 국가정책을 비난하며 사회혼란을 조성하는 자들을 철저히 색출 조치해야 한다. 우리의 젊은 세대들에게 확고한 국가관을 심어주지 못한다면 땀흘려 이룩한 보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은 사람의 지성과 인성을 길러내며 분야별 전문교육을 발전시켜 오르는 것이다. 가르침과 신뢰가 있는 곳은 후일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게 된다. (눅 24:6) 갈릴리에 계시는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마28:7) 너희 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보 오리라. (막 15:41)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시 때에 좇아 삼기든 자들... 갈릴리는 예수의 사역지로 가장 정든 지역임을 볼 수 있다. 가르침과 신뢰가 있는 사회, 정치경제 모든 분야에 발전과 화합, 이해와 사랑이 있는 갈릴리가 있다면 훗날에 추억의 장이 될 것이다. 진리의 사람을 길러내는데 모두가 삼킨의 자제로 최선을 다해 우리사회에 정든 갈릴리를 형성해 보자. 우리는 북한 공산주의와 가장 가까이 인접해있는 상황에서 철저한 반공정신이 있어야 한다.

좌경 세력들은 쉬임없이 국가혼란을 조성시키며, 일부 인사는 북한에 들어가 북한을 찬양하고 돌아왔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국가 안전망이 구멍뚫린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간첩세력들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 국정책임자는 강력한 국법으로 다스려 국가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모는 아이의 잘못에 대해 회초리로 깨우쳐 주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국가의

회초리가 너무도 미약하다. 간첩세력에 대해 철저한 응징으로 안정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 있을 대선에 국민들은 다양한 시각으로 국정책임자를 선출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관이다. 확고한 국가관을 가진 자가 대선에 선출되기를 국민들은 희망한다. 자유와 평화, 발전 모두가 국민이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성장을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해 철저히 색출 검거하여 틈새 없는 국방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지난날의 전쟁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나 오늘의 성장을 이룩한 보람을 가지고 법과 규칙이 지켜지는 사회, 신뢰와 기쁨이 있는 삶의 현장 속에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논하는 정든 갈릴리를 만들어보자.

서영웅 목사

퓨리탄 정로교회 담임
본지 성일이사

원동산수양관 2012 하계 초교과 목회자부부 영적세미나

무기력한 신앙생활 타파 교회 살리는 영적 혁명의 장소



교부 주최로 진행되는 '원동산수양관 하계성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참석자 수가 늘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원동산수양관 성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영성, 인성, 도덕성, 가치회복 프로그램으로, 교회 부흥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부흥 운동의 산실로 단독 강사인 윤석전 목사는 26년 전 연회동 지하실 개척교회를 시작으로 현재 연세중앙교회를 세계적 규모로 부흥시켰으며, 열정적이고 열려 있는 메시지는 침체한 개인의 영성은 물론, 침체 위기에 놓인 한국교회에 새로운 영적 혁명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원동산수양관은 수려한 조경과 쾌적한 환경 속에 600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하는 대규모 시설을 완비하여, 영성뿐 아니라 규모 면에서도 수양관으로서 국내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가 26년을 한결같이 진행해온 원동산수양관 하계성회를 열어뜰때도 어김없이 개최한다.

연세중앙교회 선

교부 주최로 진행되는 '원동산수양관 하계성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참석자 수가 늘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원동산수양관 성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영성, 인성, 도덕성, 가치회복 프로그램으로, 교회 부흥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부흥 운동의 산실로 단독 강사인 윤석전 목사는 26년 전 연회동 지하실 개척교회를 시작으로 현재 연세중앙교회를 세계적 규모로 부흥시켰으며, 열정적이고 열려 있는 메시지는 침체한 개인의 영성은 물론, 침체 위기에 놓인 한국교회에 새로운 영적 혁명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원동산수양관은 수려한 조경과 쾌적한 환경 속에 6000여 명을 동시에 수용하는 대규모 시설을 완비하여, 영성뿐 아니라 규모 면에서도 수양관으로서 국내

의 최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지난 20일에 열린 초교과 직분자(제직)세미나는 하나님과 목회자,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에게 직분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주님의 몸 된 교회에 열심으로 충성을 다하며, 진실하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전도하는 직분자,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종의 목회 사역을 섬기는 직분자로 거듭나게 하는 세미나로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섬김의 바른 예법을 제시하며, 하나님께서 부여한 직분의 의미를 명확히 설명해준 세미나로 힘든 목회자들에게 새 희망을 주고 있다.

하계여름수련회 마지막 초교과 목회자부부 영적세미나에서도 윤석전 목사는 성령 충만한 실제 목회 체험과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목회자들이 처한 영적 실상을 허심탄회하게 지적하여 인본주의 목회에서 신본주의 목회로 이끈다. 이론과 현실을 좇는 목회에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영적 목회로 방향을 전환케 하고,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며 주님 심정으로 영혼 구원을 열망하는 목회자로 변화케 하는 귀한 세미나다.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열려 큰 성황을 이루었다.

“영적으로 새로운 힘 얻는 시간이었다”

서울중앙지방, 연합산성성회 열기 속 진행

서울중앙지방회(지방회장 박희수 목사)는 지난 14부터 16일까지 산국기독교원에 연인원 2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연합산성성회를 열고 지방회의 발전과 개교회 부흥성장 그리고 성도의 신앙성장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합부흥성회는 '성령으로 하나님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이원호 목사(춘천 소양교회)가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했다. 이원호 목사는 '하나님의 행상을 회복하라',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풀리는 역사를 경험하라', '예수 이

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라'라는 제목으로 총 5차례에 걸쳐 말씀을 전했다.

말씀 후에는 기도 시간이 이어져 참석자들은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으며 잘못을 회개하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했다.

이번 연합산성성회를 위해 서울중앙지방회 내 50여 교회 목회자들이 예배 순서를, 개교회 찬양단들이 특별찬양을 맡고, 지방회 여전도회는 안내와 헌금위원으로, 남전도회는 주차관리로 헌신했다.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철성서수원원)

www.scogop.net

생명의 양식 '주'는 영이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고후 3장 17절)				
예 배 안 내	요 일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주 일	오전 11:00	본당 (2층)	
찬양 예배	주 일	오후 3:00	이천 수련원	
유치부 예배	주 일	오후 1:30	기도실	
초등부 예배	주 일	오후 1:30	본당 (2층)	
중·고등부 예배	주 일	오전 9:00	지하 성전	
청년대학부 예배	토요일	오후 6:30	지하 성전	
스페인어 예배	주 일	오후 1:30	지하 성전	
새벽 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5:00	지하 성전	
수요 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지하 성전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 성전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원로목사 : 이철재 감독(Bishop)
담임목사 : 이정민 목사(Mi nis ter)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절)

감독 이철재 목사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이천) 031)634-3590
부설 : 새생명 어린이집(02)464-3107



담임 정연수 목사

기독교대한감리회

효성중앙교회

정구예배			
주일 전통예배(부)	오전 9시 (연인보우이트)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00(백동)
주일 현대예배(부)	오전 11시(연인보우이트)	아동부 예배	주일 오전 11:00(고육)
주일 청년예배	오후 2시(연인보우이트)	청소년부 예배	주일 오전 11:00(연인보우이트)
주일 오후예배	오후 3시(연인보우이트)		

기도회 및 모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3:00(연인보우이트)	금요기도회	매주 금요일 오후 7:00(연인보우이트)
수요기도회(부)	매주 수요일 오전 10:00(연인보우이트)	사제직인사 모임	주일 오전 9:00(연인보우이트)
수요기도회(부)	매주 수요일 오후 7:00(연인보우이트)	경도교실	매주 수요일 오전 11:00(연인보우이트)

기독교대한감리회
효성중앙교회
www.myhyosung.net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장로 546(효성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498-1)
Tel. 032)552-5200 Fax. 552-5204



세상을 향해 빛을 발하는 교회
잘 모이고, 잘 배우고, 잘 전하자!!

담임목사 오종철

2012년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주일 낮 예배-1부	주일 오전 9:00
주일 낮 예배-2부	주일 오전 11:00
주일 밤 예배	주일 밤 7:30
수요 밤 예배	수요 밤 7:30
금요영성치유집회	금요 밤 9:00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11:00
어린이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중·고등부	토요일 오후 4:00
대학부	토요일 오후 6:30
평생학	토요일 오후 6:30

문 화 교 실

순번	구 분	시 간
1	홍남서로가대미	영요 오전 11:00
2	바울교실	주일 오전 10:00
3	탁구교실	주중 오전 12:00
4	제자훈련	주중 정한시간
5	호남의 축구교실	주일 오후 3:00
6	음악교실	주일 오후 2:00
7	수련회	주중 매일
8	제책단	주중 매일
9	홍남아동헌과후교실	주중 매일
10	홍남성경대학	오전 11:00 (수, 목) 오후 1:00 (수, 목)

한국기독교 홍성제일교회

주소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952 번지
전화 : 041-634-0441(사무실)
041-633-6146(목양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핵심장대현교회

Haeksimjangdaehyun Presbyterian Church

담임 이 선 목사

예 배 시 간 안 내

기관	시간	장소	기관	시간	장소
유치부	주일오전 9:00	4층	장년부	주일오전예배 11:00	2층
유년·초등부	주일오전 9:00	나사렛성전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대예배실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2층	수요기도회	수요일 저녁 7:00	
청년부	토요일 오후 5:00	4층	금요기도회	금요일 저녁 8:00	4층
		나사렛성전			나사렛성전
성 예배	성경대학 금요일 오전 10:00 오후 8:00	2층 대예배실	새벽기도회	매 일 새벽 5:00	
각 설 예배		설 가경실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850-3호
담임 이 선 목사 전화 02)430-9107, 02)3402-2714

‘너럭바위’에 불법 종교시설 짓고 돈버는 사찰 휴휴암



강원도 지역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양양군 휴휴암(休休庵) 일대의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지만 양양군청과 사찰측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 환경분과와 기독교대한감리회 속초남지방 환경위원회, (사)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양양환경교육원 등은 1일 성명을 통해 “양양군은 공유수면 내 너럭바위에 불법 종교시설을 철거하고 박은 철심을 제거하라”고 촉구했다. 또 “양양군은 모든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환경 유지를 위해 너럭바위를 직접 관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

에 따르면 휴휴암은 지난 10년간 갓은탈·불법 행위를 통해 10여개 사찰과 건물을 신축하는 등 사찰 규모를 키워왔다. 휴휴암은 현재 약 1만4850㎡ 규모의 부지를 사용 중이다. 하지만 이 중 사찰 소유 부지는 3300㎡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 1만1550㎡ 부지 가운데는 동부그룹 소유의 4필지 3300㎡, 대한투자신탁 소유, 개인소유, 군유지, 국유지가 포함돼 있다. 게다가 대부분 토지는 개발이 금지된 임야나 농지임에도 건물을 짓고 도로를 확장하고 경사지(절개지)를 훼손해 사찰과 주차장을 만드는 등 사찰 규모를 확장해 왔다. 특히 공유수면 내

너럭바위에 특정종교 시설인 불교제단을 설치, 각종 기도비를 받고 환경을 훼손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또한 이곳은 군 작전지역인 해안초소가 있는 곳이다. 하지만 휴휴암측은 군 해안초소를 가까이 두고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양양군과 군 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는 모양이다. 이곳은 종교시설로 허가가 날 수 없는 군사지역이다. 어쩔 수 없이 양양군은 휴휴암 측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지만, 휴휴암 측은 2009년부터 매년 2000여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을 뿐이고, 양양군은 공익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강제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양양군과 군 당국은 이제라도 불법으로 이행되는 종교시설을 철거하고 자연을 살려야 할 것이다. 현재 휴휴암 측의 막무가내식 불법개발은 끊이지 않고 있다. 각종 기도비와 관광수입 등으로 이행강제금보다 몇 배나 많은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철거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게 주변인들의 지적이다. 강원도환경운동연합 장석근 의장은 “이제라도 휴휴암은 더 이상의 환경 훼손을 즉각 중지하고 적법절차를 밟는 사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톡왔~~, 대화는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한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응법 소개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정용선)은, 최근 청소년들의 카카오톡을 이용한 욕설과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한 자살 등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예방과 대응방법을 소개했다.



교 모두가 적극적인 참여로 잘못된 문화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기로 했다.

경찰이 권장 하는 ‘스마트폰 폭력’ 예방법
학생 / 본인에게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앱 삭제 원천 차단, 지속적으로 피해 시 부모와 교사·경찰에게 알려 도움 받기, 본인과 상관없는 채팅방 접속, 불필요한 댓글이나 타인 욕설 등 참여하지 않기이며, 학부모 / 자녀의 피해사실 확인 시, 자녀의 입장에서 내용 경청하고 심리적 안정감 주기, 단순한 아이들의 장난이라고 가볍게 판단하지 않기 (초등생도 심각), 감정적 대응보다 학교나 전문가관과 상담을 통해 근본적 해결에 노력하기 등이다.

스마트폰 가입자 3천만 명 이중 청소년 가입자가 전체의 13%를 차지하며 무료 메신저인 ‘카카오톡’이 새로운 의사소통 문화로 자리 잡았고 무제한 채팅방 개설을 통한(일명 ‘떼개’) 집단따돌림 현상이 심각해졌다.

단체로 욕설을 퍼붓거나 사진을 공개하는 전형적인 가해 방법 이외에 대화방에 초대하고 무시하여 암시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느낌을 받게 하는 등으로 보이지 않는 심리적 폭력행위는 피해학생에게 우울증에 이어 자살 등 극단적 결과로 나타난다. 이에 경찰은 예방과 대응방안을 제시, 학생·학부모·학

교내 학교폭력 예방활동의 중점적 추진 사항으로 설정, 학생의 피해 상담 시 적극 수용 문제해결에 주력, 반드시 가해학생의 보복 등 고려 2차 피해예방 대응

충남경찰청 117신고 센터에서는 24시간 피해신고와 상담을 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2학기 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범죄예방교실’ 강의 시 이러한 유형의 언어폭력행위에 대해 폐해와 처벌될 수 있음을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9.1부터 2개월간 추진 예정인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중 홍보와 단속을 강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기총 광복절 67주년 기념예배 및 찬양 콘서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애국자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차군규 목사)는 12일 오후 4시 부전동광교회(류철량 목사)에서 광복 67주년 기념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해방의 기쁨을 나누고, 나라와 민족을 향한 사명을 재확인 했다.

이날 총회장 차군규 목사(순복음부천교회)는 “참된 해방” 제하의 설교에서 ‘복음을 위해 살 때 이해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지만,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제 치하 36년과 6.25동란을 이기고 오늘 대한민국이 세계속에 우뚝서서 빛을 발할 수 있게된 것은 환난 날 기도와 순교로 이 민족을 지킨 선배님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면서, “자랑스러운 선배님들의 뒤를 이어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새 출발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애국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상임회장 조주환 목사(강변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예배는 공동회장 김경문 목사(중동교회)의 기도, 장로공동회장 원종호 장로의 “행16:19~32” 성경봉독, 부전동광교회 성가대의 찬양, 회계 정만수 장로의 헌금기도 등에 이어 특별기도 시간을 가졌다.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를 위해, 남북한

문제와 인권을 위해, 국가발전과 경제를 위해, 나라와 연발 대선을 위해, 세계평화와 선교사를 위해, 부천시 복음화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각각 소사구연합회장 이봉식 목사, 원미구연합회장 이성화 목사, 오정구연합회장 이규환 목사, 공동회장 성양권 목사, 공동회장 박동순 목사, 증경총회장 김창욱 목사, 윤상호 목사가 맡았다.

계속해서 경기총 총회장 김영진 목사(원미동교회)의 축사와 김만수 부천시장의 인사, 한선재 부천시의회 의장의 경축사, 동광교회 당회장 류철량 목사의 인사, 장로공동회장 송창섭 장로의 내빈인사, 사무총장 김재우 목사의 광고, 증경총회장 이신교 목사(여곡교회)의 축도가 있었다.

이날 특별히 광복 67주년을 기념하면서 찬양 콘서트가 진행되기도 했다. 복음가수 이영화 집사(전 대중가수)의 인도하에 소프라노 김윤희 집사, 복음가수 오준, 소프라노 김수현이 출연해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예배는 부천시역내 2500여 성도들이 함께자리해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 지역선교를 향한 사명을 재 결단했다.



영종하늘도시 공사장 도난예방 특별 점검

공항지구대, 지속적 순찰 계획

인천중부경찰서(서장 이성형) 공항지구대(대장 한만규)에서는 지난 8월22일 오전 최근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었으나, 전반적인 경제 침체에 따른 입주 지연 사태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입주 중인 아파트를 비롯한 주변 공사현장에 있는 고가의 자재 물

사현장 30여 개소에 대한 방범홍보 등 특별 방범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만규 공항지구대장은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어 앞으로 치안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주변 공사 현장에 놓인 고가의 자재 물에 대한 도난예방차원에서 특별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영종하늘도시 주변의 순찰을 지속적으로 강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저스타임즈 광고안내

www.cpj.kr(크리스찬포토저널) CPJTV인터넷방송
www.jtntv.kr(jtntv방송) JTNTV인터넷방송

인터넷방송 : 배너광고 및 팝업광고에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 21개 지사와 해외 26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날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신문과 인터넷방송입니다.
지면을 통한 신문 지저스타임즈(격주신문)가 있어서 광고에 힘쓰고 있습니다.
신문과 인터넷TV방송에 광고를 보내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힘쓰겠습니다.

본 사 : E-mail : jtpress@hanmail.net
웹 하 드 : ID : cpjkr PW : km1122
본사문의 : 032-672-3031(팩스겸용) 070-8230-0034
대 표 : 010-5468-6574
본 사 :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48-26
편 집 국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 (대운빌라 2층 202호)

곽영민 목사 심령회복 성회



사무국장 곽영민 목사

경인부흥사협의회 기획처장.
세계 한민족 복음화 부흥사 협의회 실무국장.
세계 주영광 부흥사 협의회 상임회장 및 사무총장.
지저스 타임즈 인천지사장 및 본사 사무국장.
백석총회 인천노회 소속.
(예·장)등불교회 담임.
예수능력치유센터 설립 및 원장.
온누리 선교회 21대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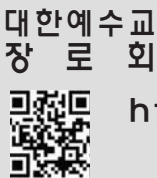
“부흥회 및 부흥사 연수 요청”
010-2080-0651

성·회·일·정

8월: 6일(월)~9일(목) (인천 영종도)영성 기도원 연합성회(담임: 주갑사 목사).
13일(월)~15일(수) (인천)벤엘교회 연합성회(담임: 정성준 목사).
16일(목) (인천)예수능력치유센터 목요 성회(원장: 곽영민 목사)
19일(주일) (인천)은총기도원 성회(원장: 주은총 목사)
21(화)~23일(목) (인천)은혜와사랑교회(담임: 안병창 목사)
27(월)~30일(목) 세주부흥 3기 연수 및 7차 정기총회 주관 (예천)나들목 기도원(원장: 구생수 목사)

9월: 3일(월)~5일(목) (순천)에바다 기도원(원장: 정정주 목사).
17일(월)~20일(목) (인천)은총기도원 연합성회(원장: 주은총 목사)
27일(목) (인천)예수능력치유센터 목요 성회(원장: 곽영민 목사)

“세계주영광 부흥사 협의회”에서
함께 하실 부흥사를 모십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등불교회·예수능력치유센터
http://kmission.onmam.com
cafe.daum.net/kmission



☎032-891-0651, 010-2080-0651
담당목사: 곽 영 민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두광주리기도원

- ◆ 매일 첫째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정기부흥성회 새벽·오후 3시·저녁 8시
- ◆ 매일 저녁 10시 기도회
- ◆ 매주 월요일 11시 구국기도회
- ◆ 매주 화·목(저녁 8시) 응답치유 기도회



원장 김평호 목사

《김평호 목사 8~9월 집회 일정》

- 8월 27-31일 : 물덴동산기도원(이상옥원장)
- 9월 3~ 6일 : 열두광주리기도원 정기집회
- 9월 10~17일 : 믿음교회(배정희목사)
- 9월17~20일 : 신바람영성원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신촌리 631-4
☎033-263-6975, Mobile. 010-8411-0191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예복 교회 담임 / 본지 사장)

1. 행한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성경: 에스겔 16장 53절-63절 찬송가 404장
본문은 범죄한 유다민족에게 공의를 따라 그들의 죄악을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범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진노와 형벌을 가하십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멸망이 아니고 축복과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죄 가운데 거할 때에 즉각 회개하고 돌아오는 가정들이 되어 그 다음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화하기를 소망합니다.

2. 그 분을 알아감으로

성경: 에스겔 17장 1절-10절 찬송가 218장
본문은 인간의 거짓과 대조하는 하나님의 불변성과 진실을 나타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맺은 언약의 내용들로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불순종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언약을 저버린 인간과 달리 하나님은 변치 않고 끝까지 그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실함과 불변함을 알아감으로 그 믿음과 신앙을 변치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3.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 했느냐?

성경: 에스겔 17장 11절-21절 찬송가 183장
본문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바벨론을 배반하자 그들에게 멸망을 선포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왕이 시드기야를 유다왕으로 세울 때에 바벨론에게 충성할 것을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을 배반한 것은 곧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죄를 그의 머리에 돌릴 것이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와 맹세 했느냐' 보다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또한 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맹세를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4. 영원한 나라 예수그리스도

성경: 에스겔 17장 22절-24절 찬송가 183장
인간은 누구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

다. 역사상 제왕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모두 꿈과 같이 이 땅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고 살면 세상나라의 제왕들이 사라지듯이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을 사모하는 자는 그 나라가 영원하며 평화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영원한 나라인 천국을 소망하며 평화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5. 아버가 신포도를 먹음으로 아들의 이가 시다

성경: 에스겔 18장 1절-9절 찬송가 460장
사람은 자신의 죄악이나 선행에 대하여 결과적으로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전통적으로 조상의 죄를 후손이 받게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이들은 "아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는 속담을 믿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오늘 히브리 민족의 고통이 조상탓이 아니라 먼저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우리의 죄를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이에게 그 죄를 전과하기 보다는 먼저 우리의 죄를 바로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바로서기를 소망합니다.

6. 쉬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는 가정

성경: 에스겔 18장 10절-18절 찬송가 163장
사람은 누구나 개개인의 행위에 따라 상과 벌을 받게 됩니다. 낱고 길러주신 부모가 의인이라고 해도 불의하고 부정하고 악한 자식은 결코 선대하지 않는다는 본문의 말씀은 모든 책임은 개별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혹은 믿음이 좋은 형제자매를 두어도 범죄 하게 되면 그 죄에 대하여 죄의 댓가를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앞에는 예외가 없다는 말씀대로 집행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가정들은 내가 구원 받았다고 하여 내 가정이 구원 받았다고 생각지 말고 믿지 않는 나의 가족 나의 친지나 이웃을 위해 쉬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기를 소망합니다.

7.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가정

성경: 에스겔 18장 19절-24절 찬송가 344장
인간은 누구나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예전동산에 살았던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에 끌리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법과 의를 행하며 율례를 지켜 행한다"는 것은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



소진우 목사

- 예복교회 담임
- 지저스타임즈 · JTNTV방송 사장
- 라이프원도미션 총재
- 국동방송칼럼리스트
- 백성TV칼럼리스트
- CTS 칼럼리스트

니다. 의인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처럼 우리 인간은 이처럼 욕심에 이끌리어 스스로 죄인이 되며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함으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8.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성경: 에스겔 18장 25절-32절 찬송가 403장
죄악으로 말미암아 소망 없는 자에게는 진정한 회개만이 죄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살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포로생활 중에 있는 선민은 죄악에서 떠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새 생명을 누리는 길입니다. 고난 중에 소망 없이 살아간다면 그 역경을 탈출하는 길은 오직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힘 그리고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있어났던 평양 부흥운동처럼 우리 가정들의 회개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민족이 다시 한 번 말씀으로 일어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9. 복의 가문을 만들어 가는 가정

성경: 에스겔 19장 1절-9절 찬송가 336장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실하게 순종하는 자는 번영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신실하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불순종하고 헐기와 포악으로 가득한 자는 끊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10장 28절을 보면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리라"라고 하였습니다. 불순종은 멸망을 스스로 자초하는 가장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복의 가문을 만들어 가기를 망합니다.

10.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 단단히 붙어있는 가정

성경: 에스겔 19장 10절-14절 찬송가 168장
주어진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사명을 저버린 포도나무는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다. 최악의 폭풍은 포도나무의 뿌리까지 뽑아버렸습니다. 나무는 수분을 통하여 영양을 공급 받아야 삽니다. 그러나 끝내 뿌리가 뽑혀진 나무는 말라 죽고 말 것입니다. 주어진 축복과 사명을 저버리면 하나님은 그 뿌리를 뽑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에 온전히 붙어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받아 누리게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1.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성경: 에스겔 20장 1절-9절 찬송가 405장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특별한 요건을 구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것을 잊고 하나님 앞에서 배은망덕한 우상을 섬기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 역시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그 믿음과 신앙이 변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 용서를 실천하는 가정

결심에 대한 성구

1. 무엇을 결심할 것인가?

수24:15 -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
삼상12:20 - 주를 좇는 것을(마10:28)
고전15:58 - 주의 일에 힘쓰는 것.
수1:7 - 오직 의롭게 행하는 것을
행14:22 -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을

2. 결심하는 자세

단1:8 - 신앙적이 결심을 해야 함
단3:17-18 - 변치 않는 결심
왕하7:4 - 현명한 결심(네 문둥이의 결심)

성경: 에스겔 20장 10절-17절 찬송가 418장

하나님께서서는 마땅히 죽을 죄인들에게 은혜로 용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마땅히 심판하셔야 했지만 당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시려고 그들의 징계를 유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 하신 것은 어떤 의로움을 보셨다거나 그들의 능력에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빛 깊은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광을 위해 살아가며 한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용서를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3.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가는 가정

성경: 에스겔 20장 18절-26절 찬송가 330장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이 보여준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와는 그 백성이 말씀을 성실하게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결코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지킬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요 축복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은 불순종한 사람들의 행위를 답습하기 보다는 믿음의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말씀대로 순정하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4.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성경: 에스겔 20장 27절-32절 찬송가 209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계약 관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배반함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하고 높은 산과 무성한 나무 앞에서 축복을 빌고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분향하고 전제를 부어 제사를 드림으로 열조의 가증한 풍속을 그대로 좇아 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역시 우상을 섬기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등지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4:11-16 - 죽음을 각오한 결심

눅19:8 - 회개하는 결심

벤후3:11 - 경건하게 사는 것

계2:10 - 죽도록 충성하는 것

3. 왜 결심해야 하는가?

마10:28 - 주님께 항당하기 위해서

행21:23 -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눅24:23 - 모든 제자와 같이 주의 일하기 위해서

창19:15 - 심판을 받지 아니하기 위해서

눅15:18 - 굶어 죽게 되었으니

웨스트민스터 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신학생 모집



학장정기환 목사(DPhD)

지망생에게 드리는 글

현대는 새로운 세기와 급격한 변화의 세계화라는 물결 속에 접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굳게 지켜왔던 전통적 가치들이 험악이 무너져 내리는 대변혁의 시대가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웨스턴 총회 직영신학교로서 ▲ 개혁신앙에 입각한 학문의 정통성을 확립하여 시대적인 변화에 대처하고 ▲ 영적 혼란의 시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성경진리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통찰력을 소유하게 하며 ▲ 세상의 참된 자유와 소망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미래 지향적인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의 추세에 맞추어 6대주에 활동할 수 있는 선교사역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국내외의 저명한 신학자들을 교수로 초빙하여 심도 있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교통과 각종 장학제도는 모두에게 드리는 혜택이기도 합니다. 부디 이곳을 통하여 주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며 함께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본교를 향한 여러분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은 사명감이 충만한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학장약력 ◆웨스트민스터신학교 학장 ◆사단법인 기독교술원 이사장 ◆세계원주민 선교회 회장 ◆글로벌 평생 교육원 원장 ◆국제기독교지도협의회 총재 ◆전원종교교회 담임목사 ◆저서 성경개론 외 다수

설립목적

본교는 친구와 성경은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보수적 개혁주의 신앙의 정통성에 입각한 초교파 신학교로써,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세계선교와 목회사역 및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참신한 일꾼을 양성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출서류

①입학원서(본교양식)1통 ②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③주민등록등본 1통 ④여권사진 3매 ⑤편입생은 성적증명서 1통 추가

특전

· 본원 소속교단으로부터 남,여 목사안수를 받습니다.
· 성적 우수자 및 신앙심이 투철한 자에게 각종 장학금혜택 제도가 있습니다.

전형안내

· 전형기간 : 12월 ~ 2월(봄학기), 6월~8월(가을학기)
· 전형방법: 서류전형 / 신앙면접

모집학과

과 정	학 과	기 간	자 격	비 고
학 부	신 학 과	8 학 기	고졸 및 동등이상 학력의 세례교인	목회자 및 연구과정
	선교학과			선교사 준비
	상담학과			각계에서의 상담활동
	무용학과	6 학 기	중졸 및 동등이상 학력의 세례교인	댄싱워십 선교 및 다양한 활동
통신과정				
별도 상담에 의하여 과정 및 학기를 결정함				
대학원부	상기의 전학과	M.Div.6학기 기타 4학기	학부 과정을 필한 자	목사안수 및 지속적 학문연구
학 술 원	해당학과	4~6학기	면접 및 심사 후 해당 학위 가능한 자	권위 있는 해외 신학교와 연계하여 과정을 이수함.
편 입 생	각 학 과	1~3년	타 신학교 중퇴 또는 이수자 혹은 통신과정 후 편입가능	편목과정은 별도로 있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닢을 뿌리리라"(마11:7)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사6:8)

이번학기 교수진

정기환교수(조직신학) : (D.R.E., Th.D)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美)Trinity Theological Seminary
장광용교수(고대근동학) : (Ph.D)(臺)University of Sydney (美)University of London
이현우교수(이스라엘역사) : (Ph.D)서울大學校大學院 (美)Columbia University
권병철교수(변증학) : (Ph.D)서울大學校大學院
Torch Trinity Graduate School of Theology
정철성교수(구약신학) : (Th.D)(獨)Ruhr-Universität Bochum
임철환교수(교회정치) : (Ph.D)(美)University of Bible Seminary
최병관교수(비교종교학) : (Th.D)(美)Life University
박광복교수(주교교육) : (D.S.M)(伊)Lucio Campiani 國立音樂學院
박종철교수(목회상담학) : (Th.D)長老會神學大學校大學院
박종혜교수(가정상담학) : (D.C.C)(加)Canada Christian College
이우금 교수(MBTI) : (Ph.D)이화여자 대학교, 피어선신학 대학원 대학교
박상국교수(교회음악) : (D.S.M)(伊)Lucio Campiani 國立音樂學院
안병설교수(교회행정) : (Th.D)(加)Canada Christian College
이화순교수(선교학) : (D.D)(美)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정현모교수(선교언어) : (中)中國南京大學, 韓國外國語大學校大學院
Charles McVety(교회사)(D.Lit)(蘇)St.Petersburg State University
John Wesley Tobey(히브리어) : (Th.D)(加)University of Toronto
Rondo Thomas(조직신학) : (D-CPC)(加)Canada Christian College



정통신학의 요람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웨스트민스터신학교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617-4
※부개역 2번출구 송내역 방향 200m 지점 대평프라자 5층
※주차장은 건물 뒤편으로 오시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 오실 수 있습니다.

● 대표전화 : 032)323-5552, FAX : 032)322-0099
● H · P : 010-2956-9191 야간 : 032)321-9109
● E-mail : Keyone209@hanmail.net

한기총 질서위 긴급 위원회의 가져

기하성 여의도 관련 사태에 대한 대책 회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질서 확립위원회(위원장 김용도 목사, 이하 질서위)는 23일 (목) 오전 7시 30분 긴급 위원회의를 가지고, 최근 벌어진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순복음, 총회장 이영훈 목사)의 '한기총 행정보류'에 대한 것과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대표회장 앞으로 보내온 통지서에 대한 대책 회의를 하였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순복음)는 지난 8월 20일(월) 제61차 제2회 정기집행위원회를 열고 최성규 목사(순복음인천교회 담임목사)가 주장한 조종기 목사를 비방한 한기총의 비공식 문건과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이영훈 총회장에게 대한 음해성 발언 등을 이유로 한기총에 행정보류를 결정했다는 일부 언론들의 보도가 있었다.

또한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법적대리인 명의를 함께 한기총 대표회장 앞으로 이영훈 목사에 대해 음해성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통지서를 보내온 바 있다.



이에 대해 질서위원들은 장시간 회의 끝에 대표회장 앞으로 온 통지서에 대한 것과 함께 기하성(여의도순복음)과 관련한 사태에 대한 답변을 성명서로 내기로 하고, 최성규 목사가 계속해서 한기총에 대한 음해성 발언이나 행위를 할 때는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하기로 가결하였다.

한편 위원장 김용도 목사는 회의에서 "한국교회 혼란을 가져오는 상황에 대해서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나감과 동시에 대화의 창구를 열어서 문제를 풀어가지"며 말했다.



칼럼 김진홍 목사 장보고와 제주해군기지

제주 해군기지 통일한국시대 해양수호 위해 반드시 필요



1,200년 전 통일신라시대에 한반도를 비즈니스 센터로, 물류와 교역의 허브기지로 만들고자 하였던 영웅이 있었다. 해상 왕 장보고(張保皋)이다. 그가 웅대한 포부와 경륜을 펼치지 못한 채로 50대 초반 나이로 피살되

면서 겨레의 바닷길이 막히고 말았다. 육당 초남선의 글에 의하면 그가 숨을 거두는 자리에서 통탄하며 남긴 말이 있다.

“내가 죽으면 닫힌 바다를 누가 열 것인가” 그가 남긴 말과 같이 그 이후로 우리 바다는 닫혀 있었다. 1,200여년을 닫혀 있었다. 1,600년대 임진왜란 때에 이순신 장군이 남해 바닷길을 열었으나 일본의 침략을 막으려는 방어적인 자세였다. 장

보고처럼 동북아시아의 해상경쟁권을 한 손에 잡고 한. 중. 일 삼국의 무역을 주도하며 한반도를 무역, 물류의 중심지로 건설하려는 공격적인 자세였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1,000년이 넘도록 그를 잊고 좁은 땅에서 움츠리며 살아왔다. 장보고 이래로 누군가가 그의 기상을 이어받아 태평양의 조그마한 바위섬 하나라도 우리 깃발을 꽂아두었더라면 반지름 200해리(375Km에 해당되는 넓이)의 영해(領海)가 생겼을 터인데 그러지 못했다.

지금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이 진행 중이다. 다가오는 통일한국시대의 해양경쟁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워져야 할 기지이다. 그런데 제주해군기지건설을 한사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신부님도 있고 스님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다고 한다. 그분들을 모시고 장보고의 청해진이 세워졌던 완도로 가서 흠금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불현듯 일어난다. 김진홍 목사는 두레교회 원로목사이며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회장을 맡고 있다.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 고소와 관련 공식입장 밝혀

형령 혐의에 대해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결코 사실도 아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의 대형교회로 손꼽히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소망교회 담임 김지철 목사와 일부 장로들이 최근 반대측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자금 횡령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교회 담임인 김지철 목사가 지난 8월14일 교회 홈페이지 통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망교회 김지철 목사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을 통해서 "저는 지금 소망교회 담임목사로서 모든 성도님들과 한국교회 안타깝고 쇠잔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최근 지난 6월에는

이00, 조00 두 집사가 담임목사와 2명의 장로를 배임 및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서, 제2교육관 부지 매입 시(2004년), 선교관 및 제1교육관 리모델링 공사 시(2008년) 그리고 지난 6월 제주도 소재 유휴 임야(1200평) 매각 시에 담임목사가 거액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나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결코 사실도 아니다"

라고 공식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지철 목사는 "지금껏 처리된 37건(소송)과 마찬가지로 사사건건 이런 허위 주장으로 인해 개인의 명예를 넘어 교회의 거룩함과 명예가 끝도 없이 실추되고 있는 현실에 담임목사로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 한없는 부끄럼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저는 소송 제기자들이 하나

님 사랑을 누리는 교회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길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더 이상은 안 되며, 지금까지 소송을 제기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를 훼손한 사람들에게 교회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지철 목사는 "이번 고발 건까지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지면, 이들은 스스로 응분의 책임을 지고 모든 교회의 직

분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면서, "항상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함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저는 소망교회가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생명을 바쳐 헌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지철 목사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시무·은퇴 장로 134명 중 일

부 시무·은퇴 장로(이모, 조모, 송모, 최모 장로 등) 19명은 소망교회와 담임목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 23건, 형사소송 14건등 총 37건의 소송을 일방적으로 제기했으나 검찰과 법원에서 각각·각하·무혐의 등으로 모두 처리되었고, 우리 교회가 소속된 노회와 총회에도 7건의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으나 5건이 이미 해결 처리 됐다고 밝혔다. 또한 김 목사는 이들이 2012년 지난 6월 예상 통합측 총회 재판국에 김지철목사가 소망교회 위임목사란 것이 원천 무효라는 '위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지적을 했다.

다음은 소망교회 담임 김지철 목사가 밝힌 공식입장의 전문이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저는 지금 소망교회 담임목사로서 모든 성도님들과 한국교회에 안타깝고 쇠잔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과 방송에 나온 "소망교회 담임목사 교회 자금 횡령혐의로 피소" 기사를 포함한 그동안의 소송 사건과 관련하여 공식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시무·은퇴 장로 134명 중 일부 시무·은퇴 장로(이모, 조모, 송모, 최모 장로 등) 19명은

소망교회와 담임목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 23건, 형사소송 14건등 총 37건의 소송을 일방적으로 제기했으나 검찰과 법원에서 각각·각하·무혐의 등으로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우리 교회가 소속된 노회와 총회에도 7건의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으나 5건이 이미 해결 처리 되었습니다.

당회에서 저는 몇 차례 공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분들에게 "더 이상 세상 법정으로 나가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평화를 위하여 그만하시고 대화를 통해 화합했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권면했지만 번번이 외면당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이 2012년 6

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에 김지철 목사가 소망교회 위임목사 된 것이 원천 무효라는 "위임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한 것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위임목사로 소망교회를 목회하고 사역한 것이 모두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급기야 지난 6월에는 이00, 조00 두 집사가 담임목사와 2명의 장로를 배임 및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제2교육관 부지 매입 시(2004년), 선교관 및 제1교육관 리모델링 공사 시(2008년) 그리고 지난 6월 제주도 소재 유휴 임야(1200평) 매각 시에 담임목사가 거액을 횡령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결코 사실



도 아닙니다. 지금껏 처리된 37건과 마찬가지로 사사건건 이런 허위 주장으로 인해 개인의 명예를 넘어 교회의 거룩함과 명예가 끝도 없이 실추되고 있는 현실

에 담임목사로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 한없는 부끄럼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소송 제기자들이 하나님 사랑을

누리는 교회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길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지금까지 소송을 제기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를 훼손한 사람들에게 교회는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이번 고발 건까지 사실이 아닌 것이 밝혀지면, 이들은 스스로 응분의 책임을 지고 모든 교회의 직분에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항상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함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소망교회가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생명을 바쳐 헌신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으신 교회가 거짓과 불의의 세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한국 교회 성도님들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12. 08. 14.

소망교회 담임목사 김지철 드림

대한예수교장로회

빛과소금교회

교회 표어: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21세기 비전

1. 하늘의 성을 땅에 세우는 교회
2. 온전과 전라가 되게 하는 교회
3.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
4. 땅끝까지 전파하는 교회

2012 목회 지침

네 장막터를 넓히라 (사54:2)

성령의 장막터를 넓히라 —은사

영혼구원의 장막터를 넓히라 —세계선교

성경의 장막터를 넓히라 —성경

축복의 장막터를 넓히라 —니눔

부목사: 송승길

장로: 박경순, 김혜자

전도사: 임시량, 최원희, 박애스더

협동전도사: 김신애

(우)139-818 서울시 노원구 상계5동 169-198

☎ 02)938-3521, 010-3228-3521

(빛과소금교회 수양관)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116-5

254 657 494 979" data-label="Complex-Block">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천교회

ANCH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주 안에서 온전케 되는 교회(살전 3:8)

안천의 3대 비전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변화된 세상

◆ 예배와 교육안내 ◆

예배	주일 낮 예배: 1부(오전11시) 2부(오전1시) · 새벽기도회: 새벽 5시 · 주일전야예배: 오후 2시50분 · 구역 예배: 각 구역별로 · 수요저녁예배: 오후 8시 · 수요기도회: 오후 9시
주일 학교	유치부: 유래부설(지하철) 오전11시 · 청소년부: 청소년부(지하철) 오전9시 · 아 동 부: 아동부설(지하철) 오전9시 · 영 아 부: 오전 10시30분(1층 영아부설)
평신도 교육	· 새 가 족: 주일 오전10시20분 · 성경연구: 화요일 오후8시 · 성경말씀: 아동부설 주일 오후 1시 · 배설성양: 목요일 오전10시 오후8시

(445-380)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38-153

Tel.(031) 234-0511, Fax.(031) 234-7751

502 657 732 979" data-label="Complex-Block">

대한예수교장로회

주사랑교회

선교사: 김경자

강도사: 장정훈, 이진영,

전도사: 장성철,

반주자: 한진경, 한송이

담임 장한국 목사 (본지 상임이사)

예/배/시/간/안/내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주일 대 예배	낮 11시	주일학교	오전 9시
주일저녁예배	오후 2시	학생회	토 오후 5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30분	청년회	토 오후 6시
새 벽 예 배	새벽 5시	여전도구역예배	금,토 11시
금요철야예배	밤 9시	남전도구역예배	매월 토, 저녁 6시

(우 473-080)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대림프라자 7층

전화: (031)424-7612 / H.P: 010-4436-7060

742 657 972 979" data-label="Complex-Block">

대한예수교장로회

온누리찬양교회

All Nations Praise Church

초대합니다.

찬양과 말씀 축복성회 영적으로 지지하고

힘들며 아무도 위로가 되지 않아 낙심될 때에 괴로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담임 임찬미 목사

성기는 분들

담임목사: 임찬미 목사

장로: 최원영 선교사

전도사: 전은혜 선교사, 함다나엘 선교사, 조애스더 선교사, 황연아 선교사

전도사: 정희선 선교사, 이부자 선교사

반주자: 박시은 박시내 정은주

예·배·시·간

주일날 예배: 주일 오전 11:00

주일학교: 주일 오전 9:00

주일저녁집회: 주일 오후 7:30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2:00

심야기도회: 매일 오후 9:00

학생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축복성회: 매주 금,토 저녁 9:00~

주요 예배: 수요일 오후 8:00

매주 주일 저녁 7:30~

찾아오시는 길

506-800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773-3호

☎ 010-4932-7277

070-7443-7277

목회자와 성도들 하조대 해변에서' 환경사랑 실천'

하조대교회 김승을 목사, 제19차 하조대 환경선교학교운영



환경 교회로 알려진 하조대교회는 지난 달 30일 제 19차 하조대 환경 선교 학교를 하조대교회 교회학교 학생을 중심으로 시작되어 8월4일 포천 성결교회 김영욱 목사 외 60명과 8월14일 광명중앙교회 우병설 목사 외 80명은 하조대 해변과 마을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했다.

하조대 환경 선교학교 활동은 수련회팀이 참가해 성경적인 환경의식 강화 교육을 통해 깨끗한 환경을 위한 정신 무장을 한 이후 "환경은 내 손안에 있다. 오염된 환경을 정복하자!" 구호를 외친다.

피서지 뜨거운 태양과 후끈 달구어진 아스팔트 열기를 극복하며 적은 시간에 버려진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수거하기 위하여 환경의식 강화는 필수이다. 하조대 환경 선교활동에 참가한 수련회 팀은 환경에 대한의식 강화 교육과 봉사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으며 피서인 들은 계몽 효과를 그리고 피서지는 환경정화활동을 통해 좋은 환경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하조대 환경 선교활동에 교인과 함께 참가한 포천성결교회 김영욱 목사는 "교인과 함께 경험을 토대로 포천지역에서도 환경 정화 활동을 통해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다짐했다.

광명중앙교회 함금학(여 89세)은 "마을 길목과 백사장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 한 이후 깨끗해진 환경에 생각도 마음도 깨끗하다"며 즐거워했다. 이처럼 환경정화 활동은 일이라는 개념보다는 축제분위기의 흐름을 통해 쓰레기를 버리는 흐름에서 버려진 쓰레기 줍는 흐름으로 전환되고 버리지 않는 흐름이 조성되어 깨끗한 피서지로 유지 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년 동안 피서 철 하조대 환경 선교프로그램을 운영해온 김승을 목사의

취지는 피서지 환경은 일부 피서객들의 의해 버려진 쓰레기로 몸살을 앓았지만 이처럼 깨끗한 피서지 좋은 환경이 유지될 수 있음과 동시에 참가한 청소년들의 삶의 방향이 교정됨을 알았으며, 성인들은 생각과 마음을 정돈하는 기회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며 소감을 피력했다.

한편 김승을 목사는 하조대 환경선교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삶의 현장에서 환경 정화활동 과정에 다짐했던 일들이 성취되어지길 기원했다.



‘영혼의 편안한 휴식, 쉬는 시간이었어요’



무더운 여름, 시원한 휴가 같은 사모세미나 제18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 성료 '돌아가서 정말 잘하겠습니다'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설동욱 목사)가 주최하는 '제18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가 지난 8월 6일(월)부터 9일(목)까지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에 위치한 서울예정교회(담임 설동욱 목사)에서 진행됐다.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의 슬로건(Slogan)은 '마음껏 웃고, 마음껏 울고, 마음껏 행복해 하는 사모세미나'로 수 많은 사모들이 이 세미나를 통해서 치유 받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았으며 목회자사모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번 제18회 사모세미나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더욱 큰 은혜가 넘쳤던 세미나였다.

이번 '제18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에서 말씀을 전했다 강사는 피종진 목사(남서중 중앙교회), 박선희 목사(소망교회), 강만호 목사(갈보리교회), 윤희환 목사(전주바울교회), 김승욱 목사(할렐루야교회), 송태권 목사(불꽃교회), 박영길 목사(명문교회), 서용복 목사(삼육중앙교회), 윤보환 목사(영광교회), 박태남 목사(베엘교회), 백호선 목사(청주금곡수신양관), 이은희 사모(대전중앙교회, 최병남 목사, 하귀선 선교사(세제터미널선교회), 최봉구 전문위원(한국레크리에이션협회), 설동욱 목사(서울예정교회)등으로 참석한 사모들에게 큰 은혜와 위로의 말씀을 증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이상에 사모(충북교회), 송미숙 사모(부광교회), 최미숙

사모(순복음명성교회), 박영수 사모(약마교회) 등은 각각 많은 은혜를 받았으며 재충전의 기회가 되었고, 교회로 돌아가서 남편 목사에게 내조를 잘 하겠다는 다짐이었다.

아울러 어떤 사모는 "속소에서 만난 사모를 통해서 특별한 스트레칭 방법을 배웠는데 그동안 척추측만 증으로 너무 아팠는데 배운 방법으로 꾸준히 스트레칭을 하면 많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도 갖게 되어 영육이 너무 행복한 사모세미나입니다."라고 전해 사모세미나가 개인적인 은혜를 받게 하는 동시에 다른 사모님들과의 교제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임을 알게 했다. 이외에도 참석한 사모들은 이구동성으로 세미나를 통해 큰 감동을 받았으며 받은 은혜에 힘입어 남편을 도와 목회현장에 돌아가 열심히 뛰겠다는 결심을 하고 돌아갔다.

이번 세미나를 진행한 설동욱 목사는 "2012년 이번 여름은 최근 몇십년 동안에 가장 무더웠던 여름이었다. 특히 사모세미나를 진행한 기간 동안은 날이 더 뜨거웠던 것 같다. 하지만 그런 무더위도 사모님들을 향해 부으시는 하나님의 폭발적인 사랑과 은혜의 임재하심을 막을 수는 없었다. 사모들이 얼마나 울고, 웃으시는지 그리고 기뻐하시는지 너무 감동적이었다. 사모들이 기도도 눈물을 흘리실 때 저는 마음으로 울었고 사역하시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로 가려웠던 곳을 시원하게 열어주는 강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재미있고 즐거워하시고 웃으시는 사모들을 보면서 저 또한 감사해서 웃었다"며 "소감을 피력하고, 내년 제19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에서 만나 뵙겠다."라고 인사를 하자, 벌써부터 내년 2013년에 진행될 '제19회 전국목회자사모세미나'에 대한 기대가 된다며 여가져서서 호흡의 목소리가 들려 온다.

투르카나의 맘, 그 땅에 임연심 선교사 영원히 잠들다

아프리카 케냐의 오지, 투르카나의 문맹퇴치 위해 일평생 헌신



'투르카나의 맘'으로 불리며 지난 29년 동안 케냐의 오지 투르카나에서 교회 개척과 문맹 퇴치 위해 헌신했던 임연심 선교사가 지난 4일 오전 4시 30분(현지시

간), 박테리아 감염과 고열, 호흡곤란으로 소천했다. 향년 61세. 평생을 투르카나의 아이들을 위해 헌신한 임연심 선교사와 투르카나의 첫 인연은 지금으로부터 29년 전인 19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4년 2월, 케냐에서 3개월 동안 선교훈련을 받은 후 케냐의 최북단, 수단과 에티오피

아 세 나라의 국경선이 맞닿은 오지인 투르카나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된 임연심 선교사는 1987년 6월, 여의도순복음교회 선교사로 정식 파송되어 '아프리카 1호 선교사'가 되었다.

이후 임연심 선교사는 투르카나 지역에 현직인 제자교회 25개 교회를 개척하고 총 48개 교회를 지원했다. 또한 문맹률이 95%였던 투르카나 아이들을 위해 투르카나어와 스와힐리어로 된 성경말씀 낭독용북기를 제작하고,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보살피는 데 힘썼다. 임연심 선교사를 '맘'이라 부르며 따랐던 고아원의 아이들은 현재 의사, 교사, 은행원, 회계사, 교육청 직원 등 지역 사회를 이끌어 가는 든든한 인재로 성장했다.

임연심 선교사의 오랜 꿈은 투르카나에 중·고등학교를 세우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몇 해 전 12만평의 부지를 마련

하고 학교 건축을 추진 중이던 임연심 선교사의 뜻 다 이룬 것을 이어 받아 국제개발 NGO 굿윌(회장 김창명)이 학교 건축을 위해 나선다.

케냐 나이로비, 일마라바, 모알레, 문게, 몸바사 지역에 5개의 지부를 두고 보건·의료사업, 교육 지원사업, 1:1 해외아동결연을 통한 아동 지원사업, 위생시설 및 식수개발사업 등을 펼치고 있는 굿윌은 앞으로 임연심 선교사가 일궈낸 생명의 밭, 투르카나에 학교를 건축하고 아이들의 교육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다.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가 헌신한 반평생의 세월, 임연심 선교사는 척박했던 투르카나에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심고, 온 몸과 마음으로 품어 싹을 틔워낸 진정한 '투르카나의 맘'이었다. 지구 반대편의 소외된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키워냈던 임연심 선교사의 삶을 가슴에 새기며, 굿윌은 앞으로 지구촌 소외 이웃들에게 진정한 친구로 다가가며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다.

세계최초 PC형 완전 칼라주보인쇄기

8.5인치 대형 스크린

대용량 잉크로 대량생산
잉크(4EA) 이외에 별도의 소모품이 필요 없습니다.

FORCJEC엔진사용 분당최대150매
고정 직렬 헤드로 세계최고 150ppm
정당 잉크비 20원 (20%저렴)

ADF옵션
2단 4면, 3단 6면, 4단 8면
대 사이즈, 주보까지

최대적재 용량 2,500매

★ **세계 최고의 속도**
분당 150매
시간당 9천매 생산
⇒ 작업시간단축

★ **저렴한 칼라비용**
컬러유지비 80%절감
⇒ 정당 20원 (20%원고)

★ **슬림하고 컴팩트한 디자인**
⇒ 사무환경 최적화

★ **Flexibility**
최대 548mm 인쇄
⇒ 다양한 출력물제작

2012년 신제품!!

★ 세계 최고의 속도

분당 150매
시간당 9천매 생산
⇒ 작업시간단축

★ 저렴한 칼라비용

컬러유지비 80%절감
⇒ 정당 20원 (20%원고)

★ 슬림하고 컴팩트한 디자인

⇒ 사무환경 최적화

★ Flexibility

최대 548mm 인쇄
⇒ 다양한 출력물제작

★ High Speed

150매/분 (9천 매/시간)
⇒ 작업시간단축

★ One Pass Two Color

드럼2개 동시장착
⇒ 동시 3도 인쇄

★ Color Performance

1칼라추가로 인지도 향상
⇒ 풀 칼라 구현 효과

★ Flexibility

최대 291X412mm
(카드, 봉투, 엽서)
⇒ 다양한 처리능력

세계최초 PC형 3도 칼라주보인쇄기

8.5인치 대형 스크린

대용량 잉크로 대량생산
잉크(4EA) 이외에 별도의 소모품이 필요 없습니다.

FORCJEC엔진사용 분당최대150매
고정 직렬 헤드로 세계최고 150ppm
정당 잉크비 20원 (20%저렴)

ADF옵션
2단 4면, 3단 6면, 4단 8면
대 사이즈, 주보까지

최대적재 용량 2,500매

★ **High Speed**
150매/분 (9천 매/시간)
⇒ 작업시간단축

★ **One Pass Two Color**
드럼2개 동시장착
⇒ 동시 3도 인쇄

★ **Color Performance**
1칼라추가로 인지도 향상
⇒ 풀 칼라 구현 효과

★ **Flexibility**
최대 291X412mm
(카드, 봉투, 엽서)
⇒ 다양한 처리능력

고생산성 (High Speed)

- ① 분당 150매의 고속출력
- ② 3도 양면주보 500부 인쇄시간 9분
- ③ 칼라드럼 교환 없이 동시 3도 인쇄
- ④ 고속, 낮은 코스트로 시간 비용 절약

고해상도 (High Quality)

- ① 600dpi의 고 해상도 출력
- ② 이미지 및 작은 글씨도 선명
- ③ 독자 3도 인쇄기술로 칼라인쇄
- ④ 최대 인쇄 사이즈 291X412mm, 용지 46-210g/㎡

세계최초!

세계최저!!

600~700만원 하던 기계를...

200만원대 출시기념!

가격은 흑백! 품질은 칼라!

이미 2,000여 교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A3를 한번에 자동으로 양면을 컬러/흑백,

복사/프린트/스캔 가능한

슈퍼 복합기 **₩6,600,000**

₩2,990,000

A3 20매

컬러 복사기

컬러 프린터

주보 인쇄기

양면 (음성)

팩스 (음성)

스캐너

출력 복사기

흑백 프린터

PC형주보인쇄기 비용절감 90% 처리속도 100배!!

최고 90% 이상의
비용절감과 재판기
인쇄기·복사기
프린터기 기능을
동시에 한대로 갖춘
고효율성!
뛰어난 내구성과
고해상도의
다양한 출력인쇄!!

2011년 신제품출시

세계 최초 1m 20 출력

주보 2단 4면, 3단 6면, 4단 8면(복사, 출력) 가능

인쇄 + 복사 + 스캔 + 팩스 = 하나로

동급 최고의 인쇄 속도를 지원하는

컴팩트한 디자인의

주보용 컬러 레이저 복합기 **₩890,000**

종형제본 & 접지기
B5-A3까지 종형제본 접지
1장 이상의 주보, 교제, 책자 등
20매 80매까지 가능

주보접지기
2, 3, 4단 주보 한번에 접지
접하는 간격조정 가능
분당 120매 접지



주보 인쇄기 보급 5,000대,
전자동 디지털 컬러 주보 복합기 2,000대 기록 달성!
영광기업을 사랑해주신 교회와 목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영광기업 대표이사 장영락 정로
H·P: 010-5779-0691, 010-3651-8572



주식회사 **영광기업**
Glory Enterprise Co., Ltd. **1588-0691**
www.juboll4.com

종로전시장 ※50여종의 기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 51-3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앞)
Tel. (02)764-5890~2 Fax. (02)764-5893 공강. (032)551-4114

한기보 제67주년 8.15광복절 기념예배

2013년 W.C.C 세계대회 부산총회를 적극 반대하며 해산을 촉구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대표회장 이범성 목사, 이하 한기보)는 8월 13일 오후 1시~4시까지 서울 종로구 연지동 1-1 여전도회관 2층 루이스홀에서 40여 교단이 모인 가운데 8.15 제67주년을 맞이한 감사기념예배 및 W.C.C 정체성 연구 세미나를 가졌다.

상임회장 박동호 목사 인도로 진행된 1부 제67주년 8.15광복절 기념예배에서 한홍교 목사(호헌총회회장)의 기도, 인도자의 성경 느2:10절을 봉독, 고병수 감독(기독교한국성경회 감독)은 "나라를 부흥하게 하는 자"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특별기도에는 박영근 목사(예수교 사도신앙의교회), 김암 목사(예장 보수합동총회 증경총회장), 천명갑 목사(예장 예신총회 총회장)가 국가 안정과 통일을, 본 협의회 발전을,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각각 기도했다.

이어서 사무총장 민정식 목사의 제창에 따라 결의문 낭독이 있었으며, 회계 이정구 목사의 헌금기도가 있는 후 사무총장 민정식 목사의 광고에 이어 지왕철 목사(상임고문)축도로 마쳤다.

이어 2부 세미나에서 사금열 목사 사회로 진행되어 이상원 목사(예장 보수총회 총무)가 기도를, 감사 송준길 목사(예장 합동근본총회 총회장)는 "왜! W.C.C와 함께 할 수 없는가?"란 주제로 열강을 펼쳤다.

이날 감사로 나선 송준길 목사는 2013년 W.C.C 세계대회 부산총회를 앞두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이를 저지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 W.C.C는 1988년 스위스 바아르 라는 마을에서 기독교, 로마 카톨릭, 이슬람 신학자 27명이 3년간 연구한 결과 w.c.c의 정체성에 대해 입장표명을 하였다.

그들은 1)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기독교가 주장하는 구원교리는 틀린 것이다. 2)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라고 하는 W.C.C의 입장을 펼쳐나간 것이다. 여기에 참된 기독교인들은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W.C.C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 하였고 모든 사람을 창조 하시기에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진리라는 신관(하나님)을 가진 단체이다. 이는 비 성경적이며 성경적인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 계시 하나님이지이다.

또한 교회가 W.C.C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존재하며 이것을 말하는 것이 교회이며 정설이다.

하지만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 W.C.C는 무어라고 하는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만이 아니고 다른 신을 믿어도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W.C.C의 정체이다.

이것은 이설이며, 교회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사탄의 전략 자체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설을 퍼뜨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들의 세력들에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또한 이것은 보수를 지향하는 교회의 당연한 의무이며, 사명이자 교회를 지키는 일

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기보 대표회장 이범성 목사의 인사말씀과 축도로 세미나를 마쳤으며 40개 교단 총회장들과 관계자들은 W.C.C의 정체인 1)용공주의, 2)포용주의, 3)혼합주의, 4)종교다원주의, 5)인본주의로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신앙관을 뒤 흔들고 무너뜨리는 W.C.C에 대해 교회에 알리고 W.C.C 부산총회를 반대한다는 결의와 해산을 촉구했다.

이날 민경식 사무총장은 결의문에서 사단법인 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는 제67주년 8.15 광복절을 맞이하여 평화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리기 위한 함과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여 나라의 존귀함을 알리고, 또한 예루살렘 운동으로 인류가 하나라는 슬로건으로 사탄의 전략과 손잡고 종교다원주의를 위하여 2013년에 열리는 w.c.c 제10차 부산총회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본 협의회 소속된 40개교단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주사파와 종북세력의 국회의원들은 즉각 사퇴하라. 1. 국가인권위원회는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하여 불교인들로 조직된 종자연의 "종교에 대한 차별실태와 개선방안연구"용역을 즉각 철회하라. 1. 종자연은 기독교교육 말살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해체하라. 1. w.c.c는 종교다원주의로 한국교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에 빠지게 하는 세력이므로 우리는 10차 부산총회의 철회를 촉구한다. 1. 선조들이 물려준 아름다운 독도,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야욕을 규탄한다. 1. 하나님이 주신 광복의 평화,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지켜내자.



예장합동보수(망원) 제96회 합동총회 열어

총회 임원배정은 제97회 총회에서 선출, 상비부는 합동위원회에 위임



대한예수교장로회(망원총회)총회는 방배동 영광교회(회장 현 목사(사무))에서 지난 8월 20일(월) 오전 11시 합동보수 제96회 합동(속회)총회를

원장 박영를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편 양상남 목사(경서노회장)의 식사기도가 있었다.

양측합동합의문

합동원칙 : 1. 1912년 9월1일 평양에서 제1회 총회로 설립한 전통을 계승한다. 2. 신학노선: 장로교의 신학적 전통인 칼빈주의 신학노선을 고수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문답과 교회정치 권징조례 및 예배모범을 교훈으로 삼는다. 3. 총회임원 배정은 제97회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기로 하다. 4. 상비조직은 합동위원회에 위임하여 각 노회장의 협조 하에 상비부를 조직한다. 5. 합동총회 일시 2012년 8월20일(월), 장소 : 영광교회(회장 현 목사), 6. 신학교 문제, 현 망

원측 총회신학교에 일임하여 향후 업무 절차를 논의 결정케 한다. 7. 합동원칙이 합의되면 합동합의문에 준하고, 즉시 합동총회를 소집, 공문을 작성한다. 합동위원은 양측(총회)에서 위원으로 파송한자로 조직되었고, 그동안 수차례 걸친 화합을 통하여 본 합의에 이르고 합동총회를 소집하게 되었다.

2012년 8월 20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망원측) 합동위원장 황덕광 목사(총회장), 황덕창 목사, 강정보 목사, 정재규 목사, 이광원 목사, 황중철 목사, 류택열 목사, 이영욱 목사.

연합노회합동위원장 김영호 목사(증경총회장), 안길선 목사 장금주 목사, 양상남 목사

피종진 목사 9월 국내·외 성회 일정



피종진 목사

3(월)~ 4(화)	대만(Taiwan) 도원지역연합성회(대회장 류계란 목사) ☎ 886-0930-654-552
5(수)~ 6(목)	대만(Taiwan) 해남지역연합성회(대회장 류계란 목사) ☎ 886-0930-654-552
7(금) 오후	한영신학대학교(총장 한영훈 목사) 실천목회연구원(원장 피종진 목사) ☎(02)2067-4511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원장 김상길 목사) ☎(031)947-0091 주최: 연세대학교 총동문 목회자부흥협의회 (총재 강영선 목사)
10(월) 오후	대구 뽕엘영성원(원장 유은희 목사) ☎ 010-3131-5354 제173차 해외성회(173rd Overseas Assembly) 말레이시아(Malaysia) 칼라룸푸르중앙교회(이충일 목사) ☎(070)8637-1140
21(금) 오후	국제총회선교신학교(학장 피종진 목사, 이사장 박명순 목사) ☎(031)968-9191 인천 새아침교회(조용환 목사) ☎(032)582-0191 서울신용교회(김철중 목사) ☎(02)481-1698
21(금) 저녁 23(주)~26(수) 23(주일) 저녁 25(화) 오전 26(수) 오전 27(목)~29(토) 30(주일) 오후	음성 대소사랑의교회(김은자 목사) ☎(043)881-6440 합동해외총회 한반도 국제대학원대학교(총장 김수학 목사) 일산신복음성교회(강영선 목사) ☎(031)901-0191 동탄 세소망교회(김홍성 목사) ☎(031)233-3132 서울 빛과소금교회(박 일 목사) ☎(02)935-0179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
010-5265-7777
jongjin777@gmail.com
TEL : (02)3411-9191
FAX : (02)401-7770

[축] 제7차 정기총회 및 제3기 부흥사 연수

6회기 임원



고문 **곽국식** 목사



총재 **이재갑** 목사



자문 **정기남** 목사



부총재 **이제원** 목사



사무총장 **곽영민** 목사



서기 **전진성** 목사



감사단장 **박수영** 목사



회계 **선명숙** 목사

- 장 소 : (제천) 나들목 기도원.(원장 구생수 목사, 010-3613-2295).
- 일 시 : 2012.8.27일(월) 오후 2시부터 ~ 30일(목) 오전11시 까지.
- 주 소 : 충북 제천시 송학면 오모리 402번지.
- 오시는 길 : ※자가용 - 중앙고속도로 신림IC나와 명성 수양관→ 황둔 초등학교 지나 5km 지점. ※대중교통 - 제천역이나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1시까지 오셔서 연락 요망.
- 문 의 : 사무총장 곽영민 목사(010-2080-0651)
- 연 수 비 : 10만원(숙식, 교재 포함)
- 준 비 물 : 성경찬송, 필기도구, 세면도구, 간단한 침구.
- 후 원 : 지저스타임즈.

철저한 야전 부흥사로서 사명을 감당하실 동역자를 모집합니다.

매월 연합 성회 장소

1주 : 뽕엘교회	담임 정성준 목사, 010-2549-9176	인천 가좌1동 142-46호.
3주 : 은총기도원	원장 주은총 목사, 010-6327-0191	인천 남구 주안2동 486-27.
4주 : 예수능력치유센터	원장 곽영민 목사, 010-2080-0651	인천 남구 송의1동 441-45.
성회 요청 문의	사무총장 곽영민 목사	010-2080-0651)



성령의 불길을 온 세계로!
세계 주영광 부흥사 협의회
<http://wlgra.onman.com>